2011년 통권 제18호 전북회화회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18. 2011.
http://cafe.daum.net/artjb

전북회화

Chonbuk Painting



운암호 밤길

장 교 철

늦은 밤
다랑이 논길 같은
이십칠 번 국도가 허방처럼 출렁이면
운암 강물은 흐르다가 그냥 쉬고 있다

무릎 꿇고 내려온 달빛과 악수하고
물가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풀들이
부끄럽게 일어나 몸을 세우는 걸 보았지

이 아득한 푸른 마당에 이제는
물결에 섞여서 춤을 추다
꽃망울 터지듯 가슴 저린 고요를 만나니
숲 속에서 잠들던 어둠도 강물로 걸어 나오네

날마다 지나가다 스쳐갔지만
아직도 알 수 없는 저 깊이
더 깊숙이 깊어지는 물의 바닥을

농담으로만 살아온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장 교 철

· 92년 '문예사조'로 등단했으며 순창문협회장을 두 번 맡았다.
· 한국문협 전주풍물시동인 회원과 전북문협신문 편집주간과 전주풍물시동인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 06년 순창군민의 장 문화장과 07년 전북시문학상, 2010년 전북문학상을 수상했다.
· 시집으로 '쓸쓸한 강물' 이 있으며 현재 순창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표지작가안내



일상에서 / 52×43cm / 한지, 먹

이 봉 금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대학원 수료
•2011 제2회 개인전 (군산 까사 디 라고 갤러리)
•2009 제1회 개인전 (전주 우진문화공간) •2011~2008 건지 한국화회
•2010~2008 자리매김전 •2011~2009 녀수클럽전
•2011~2009 아시아 그리고 쌀 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전주)
•2011. 울림-건지한국화회 (더 케이 갤러리, 서울)
•2011. 전북회화전 (교동아트, 전주) •2011. 자화상전 (서신 갤러리, 전주)
•2011. 토끼전 (전북대학교 예술진흥관, 전주)
•2010. 형상의 탐구 (AKA 갤러리, 전주)
•2010. 한국화 신 바람전 (전북대학교 예술 진흥관, 전주)
•2010. 블루닷 ART FESTIVAL (갤러리 블루닷엠, 마산)
•2009. 한국미술대상전 (한국미술센터, 서울)
•2009. 전북작가 위상전 (전북예술회관, 전주)
•2009. Young Artist art Festival - 부스전(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전주)
•2006 고을대전 입선 •2009 한국미술대상전 우수상
•주소 : 560-89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지안리즈 아파트 101-504
•전화 : 010-9277-7231 •E-mail : pumucle200@naver.com

전북회화

전북회화

이천십일년 12월

제18호

전북회화회

CHONBUK PAINTING

●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히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전.북.회.화.회.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8. 하계 스케치여행:군산 개야도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7. 29 하계스케치-동상 수련장
1994. 12. 12~20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전북인물 열전-예루갤러리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초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1998. 6. 정기모임-정기 전북회화회전 계획 논의
1998. 8. 하계 도예 캠프-기간:8.6~8.8 장소:백제도예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초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초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초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초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초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초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9. 14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김영애,윤호,이혜련,최윤경,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례,산동)
2004. 6 정기모임·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 · 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6. 2 미술 캠프 체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9. 29 정기세미나(허브랜드) - 전시회 및 회화지 발행 논의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화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1. 26 뉴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필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 - 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
2010. 11.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튜디오)
2011. 8.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C.O.N.T.E.N.T.S.

03 올해의 작가
04 전북회화회 발자취
06 전북회화회 전시리뷰

나의작업노트

08 고형숙
09 박지예
10 박성수
11 방정엽
12 서진숙
13 안순금
14 이광원
15 이명자
16 이봉금
17 이승훈
18 이진숙
19 이철량
20 이철규
21 정미현

작업실탐방

22 서학동에 깃드는 예술인들 | 김저운

수필

26 좀 게으른 자의 반 미친 이야기 | 이구학

전시리뷰

28 이철량 개인전
30 이철규 개인전
32 정미현 개인전
34 이광원 개인전
36 박성수 개인전
38 고형숙 개인전

작가탐방

40 도예가 이병로 | 이명자
44 화가 이종만 | 안순금

회화이론

48 아시아 미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그 가능성 | 김선태
52 석지 채용신 시평 | 이철규
56 왜 우리는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는 것일까 | 김영숙

작가소개

60 조소 황유진 | 이봉금

나의여행기

62 북해도 4일 | 이승훈
68 지난 여름은 행복했었네 | 이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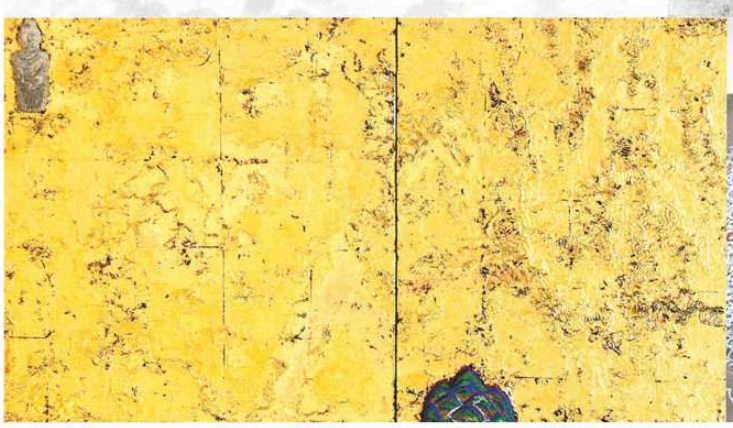
여적

74 읽을만한 책 | 편집부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18. 2011.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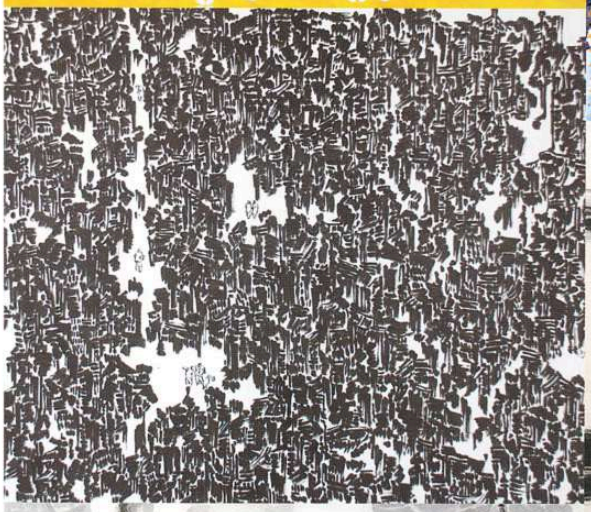





서진숙	이광원	박지예
이봉금	이명자	
이철규	방정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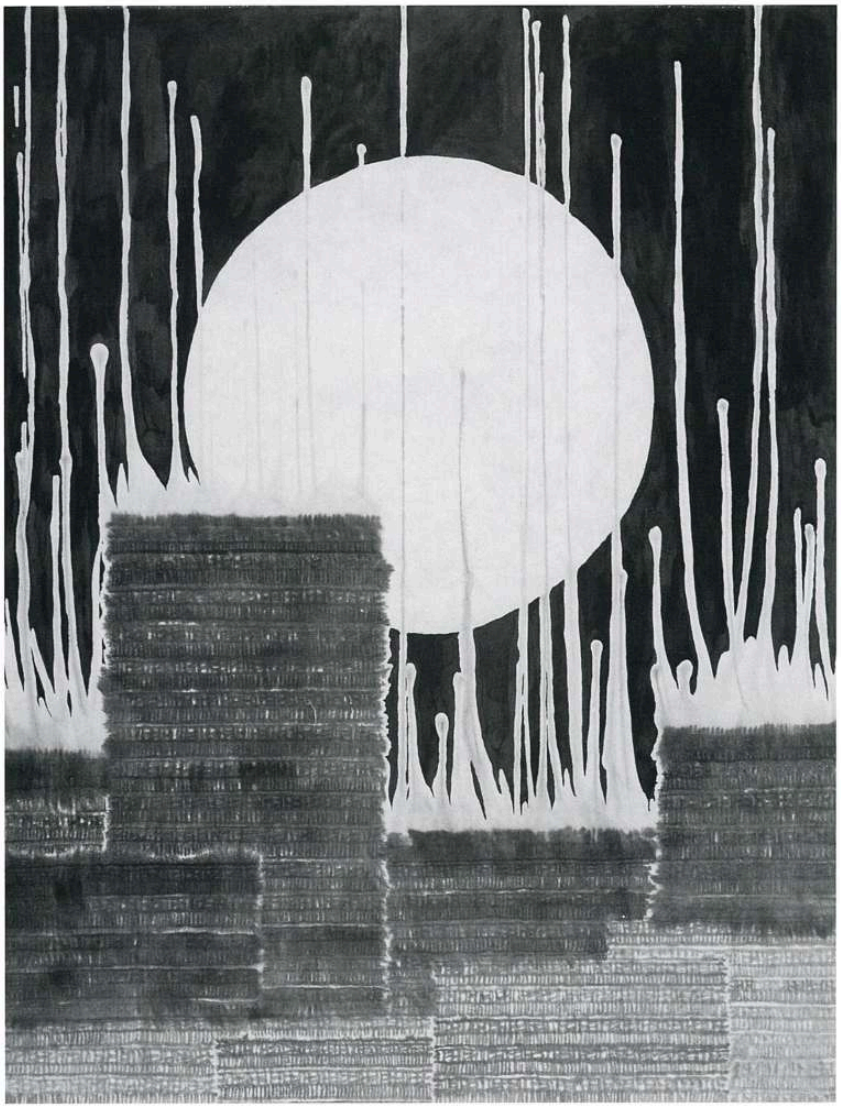
이진숙	이승훈
이철량	정미현
안순금	

전북회화

2011. 8. 16(화)~8. 21(일)

Opening _ 2011. 8. 16(화) pm 6:00

교동아트센터



검은 도시 / 50호 / 장지, 먹

나에게 도시는 이러한 다양한 시각 속에서 현대의 새로운 자연,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우리에게 꿈을 주기도 하며,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도시를 해석하고자 한다.

고 형 숙 (Ko, Hyoung-sook)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과 졸업 •개인전 6회 및 단체전 50여회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삼태마을 206-2번지(우 565-842) •전화 : 016-653-1833 •E-mail : mimi1001@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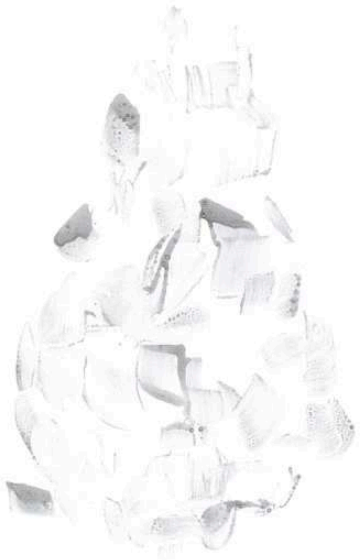


목정(木正) 선생님 / 116.8×91cm / 수묵담채

신발이 발에 꼭 맞을 때는 발의 존재를 잊듯 행복을 잊고 살던 나는
꽃피는 봄날 향교에 앉아 스케치하던 순간.....
"바로 지금이 내 인생에 꽃피는 봄날이다."

박 지 예 (Park, Ji-ye)

•원광대 대학원 한국화전공(졸) •2002 석사학위청구 개인전 •2005 전국 누드크로키전 (단원미술관) •2005 전라북도 미술대전 (소리문화의 전당) • 現) 하니미술학원장, 원광대학교 강사, 전통문화고 강사 •(우 561-835)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00-68 •전화 : 011-624-9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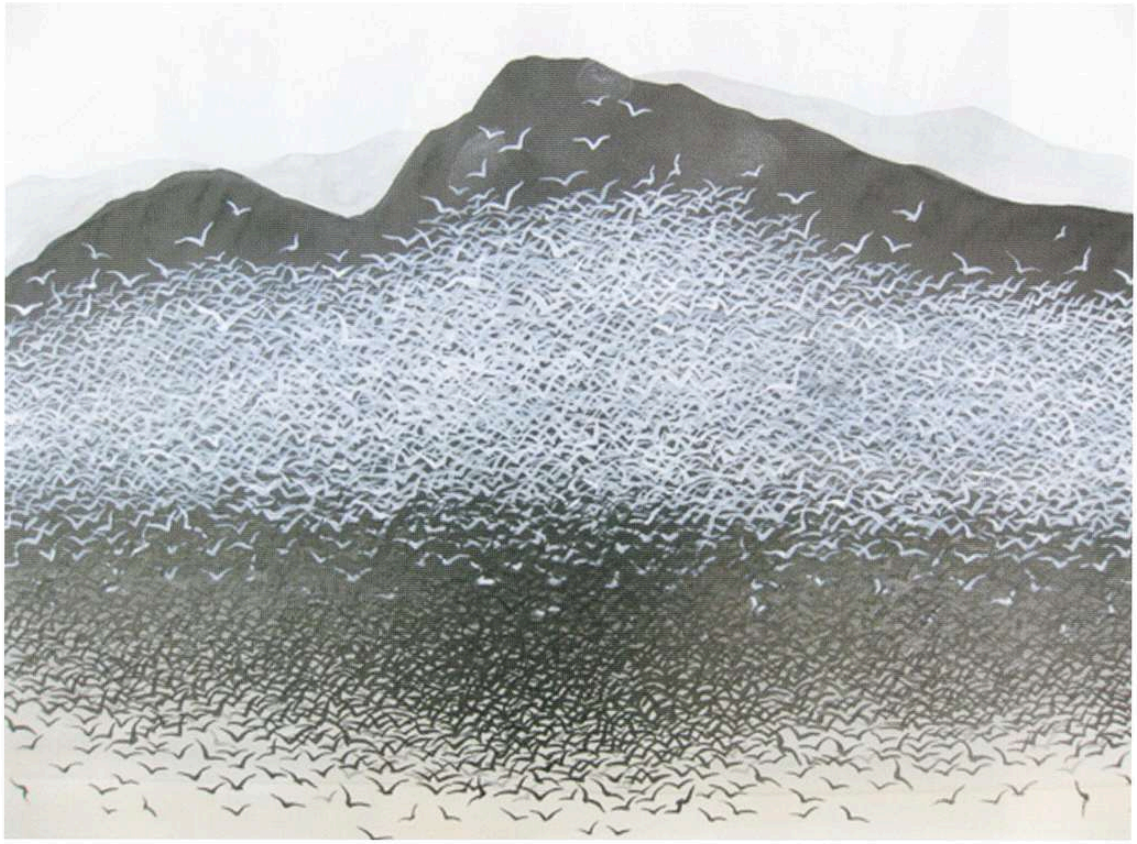


나무 tree / 153 × 120 cm / 캔버스에 먹

사람 , 사물 , 형상이 있는 것들을 그리지만 그 것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물건의 쓰임, 사람의 생김새(외형) 정도일 뿐이지 어떠한 구성물들로 조합되어 있는지,
어떤 결함이 있는지, 그 사람의 취향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인내가 어느 정도 인지와 같은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없다. 스스로 물었을 때의 평생에 있어 일관성 없는 나조차도.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 전체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시인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확실한 하나는 그 것들이 나와, 우리와, 이 세계와 상호 작용을 하며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흥미롭고 사소하지만 의미 있게 그리고 싶다. 평범한 것이 성스러운 것처럼.

박 성 수 (Park, Sung-soo)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수료 •개인전 : 2009 삼형제의 막내, 노암 갤러리, 서울 / 2009 : 삼형제의 막내, 노암 갤러리, 전주 / 2008 : 정원 _ 고유영역, 우진문화공간, 전주 / 2008 : 정원 _ 고유영역, Espace J Gallery, 상하이, 중국 / 2007 : 정원 _ 고유영역, Art Scola Gallery, 상하이, 중국 •단체전 다수 •수상경력 :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라북도 주관 2009년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사업-수도권전시지원사업 공모 당선 / 2008 전주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당선 / 2007 우진문화재단 2007-2008 미술작가지원사업 공모 당선 •작품소장 : 국립 현대미술관(미술은행)/우진 문화재단/서신갤러리/상하이 민생은행/서울 한솔 병원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45-9 •전화 : 010-9992-3661 •E-mail : sspark0308@yaho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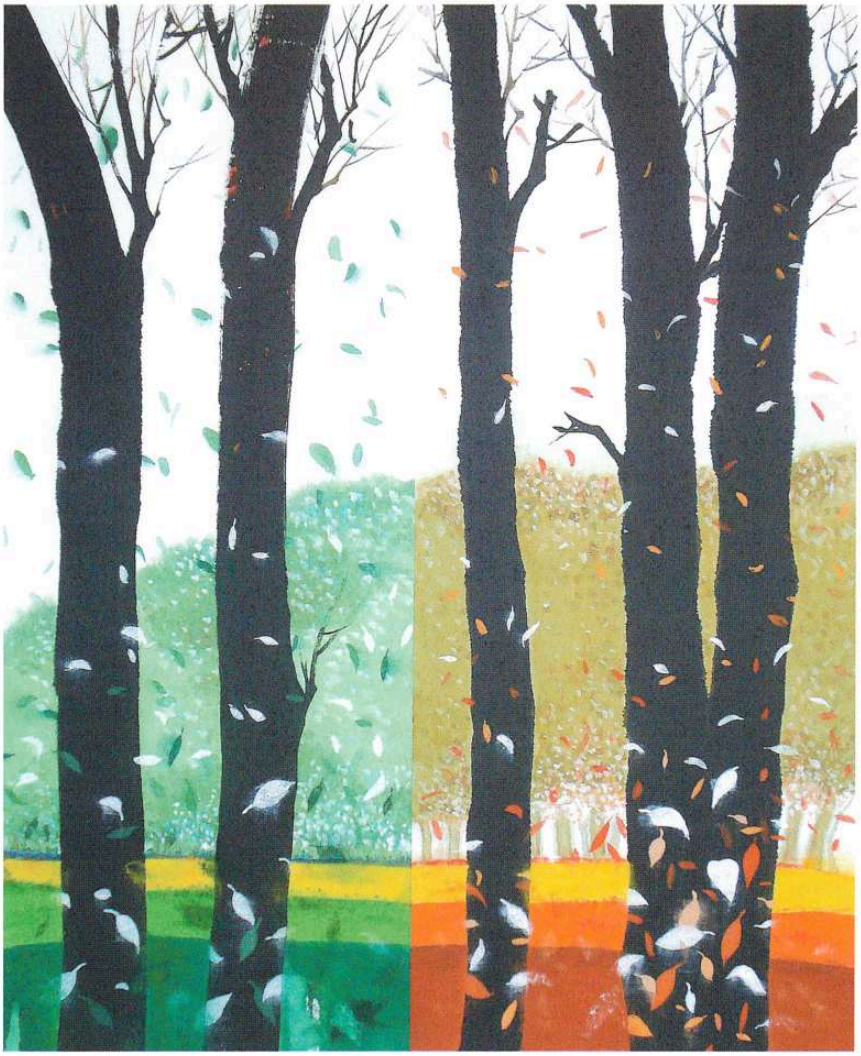


업적 / 79×110cm / 수묵담채

"새들은 알까?
이분법(二分法)으로 모든 것을 나누려고만 하는 人間세계를...
하늘이 있으매 땅이 있고 공간이 존재하며 삼라만상(森羅萬象)이
유기적(有機的)으로 얽혀 있는데.
무 자르듯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려는 옹졸함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지...
힘차게 비상(飛上)하는 새떼들을 보며 물과 땅, 창공이 하나 됨을 느낀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듯 어느 단편(短篇) 하나가 최고(最高), 최선(最善)인양 역설(力說)하는
아집(我執)을 버리고 더불어 비상하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간절히 소원해 본다.

방 정 엽 (Bang, Jeong-yeob)

*전북대 미교과 졸 *現 전라고등학교재직, 전북회화회 · 한국미술협회원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대우진버들아파트 207-802
*전화 : 063-246-3073, 011-681-7127



흐름 / 105 × 90 cm / 한지에 수묵채색

바람이 불어야만 비로소 그윽한 소리를 낸다.
인생은 무사평온 하다면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즐거움도 알게 된다.
또 하나의 조그만 행복의 문을 열어 내 자신의 생활을 즐겨 보련다.

서 진 숙 (Seo, Jin-sook)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1회('95) •단체전, 교류전, 초대전 80여회 참여 •현) 한국미협, 전북회화회, 전통미술연구회 회원
•주소: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53-7 로가 401호 •E-mail : mthill@hitel.net •전화 : 063)547-5012(직), 010-3683-2506

최근에 나는 새로운 목표를 하나 가졌다. 연필을 들어 주변의 것들을 닥치는 대로 스케치 하는 것. 할 수 있는 한 여러 번 여러 장을...

선으로 때로는 색의 변화로 그저 묵묵히 관찰만이라도 하며 작업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고 싶다. 연필과 붓을 생활의 일부처럼 지니고 살고 싶은데 사느라 바쁘고 마음 쓸 곳이 많아서 그렇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붓 한번 손에 들어보지 못하며 지내는 날이 대부분이다. 내 스스로도 안 되었고 안타깝다. 주변의 작은 것들에 애정을 가지고 그것들을 표현 하고 싶을 때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일상 / 세라믹

나는 내 작업에 사물의 재현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고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나는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붓 터치를 좋아하며 그 자국이 화선지에 번지며 다양한 먹색을 내는 것이 좋다. 내 그림 속에 그러한 본질이 녹아 있기를 바라며 그림을 그렸던 것 같다.

내가 그림에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뭘까? 가끔 한 번씩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다. 이 세상 살아 있는 동안. 또는 생(生)을 마감하고 난 다음.

내가 살아온 삶을 관조하는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어떨까?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에 관심을 갖고 인간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산이나 나무 같은 대자연을 원경(遠景)에서 그려 보기도 하고, 주변의 일상을 담아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끊임없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본질을 찾고자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비슷한 고민과 쉽지 않은 작업 속에서 몸에 진하게 배어 있는 먹 향기를 그리워하며 지내지 않을까.....

안 순 금 (An, Soon-geum)

•개인전 3회 •단체전 및 초대전 다수 참여 •현) 전북회화회 회원,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재직 •주소 : 560-283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433-1번지
•전화 : 010-2635-6314 •E-mail : f12-4@hanmail.net



지난날의 기억 / 116.7×91.0cm / 장지, 먹, 채색

억새꽃 스치는 바람에도, 해질녘 산 그림자 풍경속에도 남모를 상처 떠올리다가
말없이 가슴쓸어 내렸던 가을 맨드라미가 아닌
생기넘치는 여름날의 맨드라미, 욕망의 결정체 젊은날의 나를 돌아보았다.

이 광 원 (Lee, Kwang-won)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한국과 전공)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3회, 입선 2회 **焼失** •개천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춘향미술대전 우수상 1회, 특선 2회, 입선 1회 •전국 무등 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단원미술대전 특선 1회 •전국 신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아시아 미술대전 입선 1회 •전국 벽골대전 입선 1회 •우수대학원생 초대전(안산단원미술관) •KAF 2005 코리아아트페스티벌 초대전(세종문화회관)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전국 춘향미술대전 추천작가 •한국미술협회 회원 •전북회화회 회원 •현)하늘산바다 미술학원장 •주소 : (우)560-779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코오롱 아파트 3동 1104호 •전화:063)225-6292, 241-8745(작업실), 010-3656-6292 •E-mail : leekwon1117@hanmail.net

물을 주제로 여러 해에 걸쳐 그림을 그려왔다.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 물은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의 삶도 굴곡이 많다. 때로는 파도가 되어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처럼 거침없이 흘러가기에 나는 물을 그리며 삶을 생각한다.

붓을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그려볼까 하다가 물이 갖는 자연적, 원초적 모습을 생각하여 수지화로 표현했다.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 105×75cm / 수묵담채

변화무상한 물의 흐름을 선으로 가슴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흘러 흘러 큰 물에 이르는 물은 우리의 삶처럼 많은 우여곡절이 숨어있을 것이다.

우리 삶의 희로애락처럼 물은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비바람을 만나면 거세지고, 다시 비바람을 보듬어 흘러가며 거센 힘을 갖는다.

그 거센 물은 마을을 삼키고 논과 바다를 삼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나, 내가 바라본 물은 언제나 잔잔하고 평온하다.

계속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처럼 물 또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다.

물의 선은 부드럽고 유연하다

물의 선을 손으로 표현하여 보는 나의 작업은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나만의 관념 속에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다.

흘러가는 물과 같이 흐르는 삶은 모든 것을 비우고 소리 없이 자기를 낮추며 순응하는 삶이 아닐까 한다.

나의 삶과 그림도 흐르는 물처럼 나를 낮추며 고요히 비바람을 감내하고 싶다.

한국화가 선의 예술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내 그림의 최선의 목표도 선이다. 물과 같은 선을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표현하여 보지만 항상 마음에 차지는 않는다.

그래도 오늘 내가 바라본 물과 흐르는 삶의 물은 선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 명 자 (Lee, Myong-ja)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과 졸업 •개인전 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미술대전 입특선 4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입선 1회 •대한민국 새천년 서예문인화대전 입선 1회 •춘향미술대전 입특선 3회 •영호남 미술교류 소통&만남전 외 다수그룹전 출품 •현)전북회화회, 한국미협 회원 •인터넷묵객 서예문인화협회 추천작가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재직 •주소 : 576-80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68-13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TEL : 063-711-7753(직장) •E-mail : mjlee0117@hanmail.net

그림자를 통해 바라보는 일상

현실이 주는 물상[物象]의 무게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속에서 함께 바지런히 움직이는 나.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 것인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한다.

햇살이 비치면 대지는 빛과 함께 그림자의 세상이 된다.

본질의 형상을 통해 가변적인 자유로움을 얻게되는 그림자.
물상은 그렇게 무생물로서 가변적인 자유를 품에 넣는다.

사물의 형태는 그렇게 빛의 힘을빌어
그림자를 움직인다.

내가 어릴적 보았던 그림자에는 자연의 색이 있었다.
해질녘 길어진 내 그림자에는 석양노을빛이 감돌았고,
정오의 햇살을 머리에 인 땅딸막한 내그림자에는
백사장 보다도 눈부신 어지럼증 같은 흰빛이 감돌았다.
자라면서 내 그림자는 그빛을 잃어갔고,
회색도시에 살고있는 내 그림자는 언제나 잿빛을 띄고 있다.

사물의 색은 어쩌면 기억 저편의 색이 되었다.
그림자는 언제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내 기억의 색이 되어버린 사물의 색채들...
현재를 대변하는 나의 빛은 잿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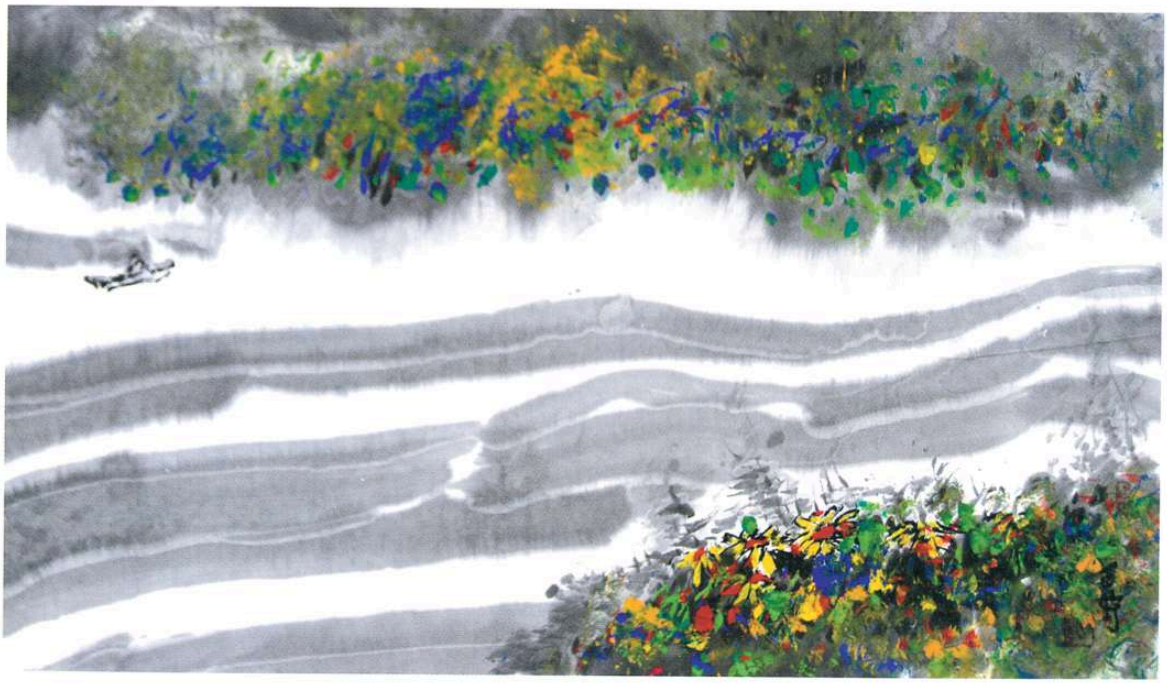
밝음을 더하다.
담묵을 통해 먹에 밝음의 빛을 투영하고 싶었다.
그림자에 색을주는 것이다.
회색빛의 그림자를 통해 사색의 시간을 갖고싶다.



공존 / 120×80cm / 한지, 먹, 채색

이 봉 금 (Lee, Bong-Keum)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대학원 수료
•2011 제2회 개인전 (군산 까사 디 라고 갤러리) •2009 제1회 개인전 (전주 우진문화공간) •2011~2008 건지 한국화회 •2010~2008 자리매김전 •2011~2009 녀수클럽전
•2011~2009 아시아 그리고 쌀 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전주) •2011. 울림-건지한국화회 (더 케이 갤러리, 서울) •2011. 전북회화전 (교동아트, 전주)
•2011. 자화상전 (서신 갤러리, 전주) •2011. 토끼전 (전북대학교 예술진흥관, 전주) •2010. 형상의 탐구 (AKA 갤러리, 전주)
•2010. 한국화 신 바람전 (전북대학교 예술 진흥관, 전주) •2010. 블루닷 ART FESTIVAL (갤러리 블루닷엠, 마산) •2009. 한국미술대상전 (한국미술센터, 서울)
•2009. 전북작가 위상전 (전북예술회관, 전주) •2009. Young Artist art Festival - 부스전(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전주) •2006 고을대전 입선 •2009 한국미술대상전 우수상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지안리즈 아파트 101-504 (우: 560-899) •전화 : 010-9277-7231 •E-mail : pumucle200@naver.com



강변 / 65×32cm / 紙本彩墨

세상은 물이 흘러 변하듯 변하지 않음이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더욱 이 변화에 어쩔 도리 없이 따라야 한다. 그 변화에 죽음도 있다.
그래서 더욱 무겁고 쓸쓸한지도 모른다.
변하는 것에 순응하면서 멋지게 산다는 것을 안다면 행복이 그 속에 있을 거라 생각한다.
화창하게 피어 있는 꽃이나 화려한 단풍,
그 영화로움과 흘러가는 돛단배 한척에 찰나의 인간 기쁨이 어려 있는 듯하다.

이 승 훈 (Lee, Seng-hoon)

•전주대학 미술교육과 및 동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제2회 •국내교류전(서울, 대전, 부산, 경주) •해외교류전(오스트리아, 미국, 중국)
•2010 전북아트페어 참가 •시화집「빈들의 소곡」出版 •시집「달개비 꽃 하늘」出版 •한국미협, 익산미협, 산묵회, 전북회화, 아트회, 전통미술연구회, 익산고적연구회, 문협 活動
•群山大成中學校 在職 •주소 : 익산시 모현동 현대3차 아파트 303동 607호 •전화 : 010-4115-0577 •E-mail : misege@hanmail.net



봄에는..... / 75×134cm / 장지, 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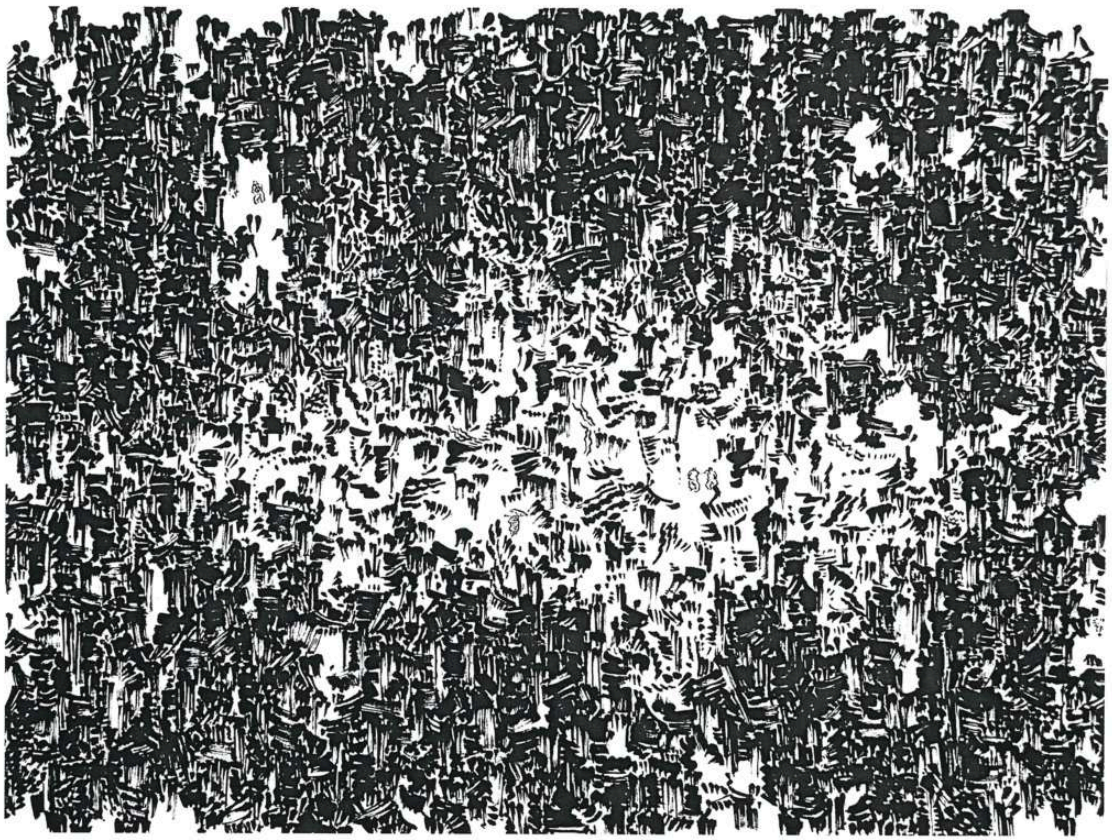
궁금해진다. 봄에는.....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를 잘 견디었는지.....

기다려진다. 봄에는.....
예쁜 개나리가 언제쯤 내게 다가올는지.....

설레인다. 봄에는.....
행여 그리운 님, 이 새봄에 만날 수 있을는지.....

이 진 숙 (Lee, Jin-sook)

•원광대학교 졸 •개인전 7회 •그룹전 및 초대전 다수 출품 •현) 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한국미협회원
•전주시 덕진구 장동 900-27 •전화 : 010-4605-9876 •E-mail : waltzz@dreamwiz.com



신시 / 180×180cm / 천에 수묵

거대한 빌딩 숲들은 매우 차갑고, 도식적이다. 도시의 콘크리트와 유리벽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만, 그러나 도시는 인간들과의 교감을 거부한다. 인간들은 도시 속에서 도시와 함께 꿈을 꾸지만 도시는 인간들의 욕망을 끝없이 거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오늘도 높은 암벽처럼 다가오는 빌딩 숲 사이를 달려가는 인간들의 슬픈 삶이 그렇게 보여 진다. 그러나 나는 도시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싶다. 내 가족이 나고 살아가는, 그리고 내 이웃과 나의 삶이 엮여있는 이 거대한 도시를 가슴으로 바라보고 싶다. 나의 아버지가 앞산 봉우리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밭길을 걸었던 것처럼 나는 빌딩 숲 위에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싶다.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들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건네주는 도시로 바라보고 싶다. 그래서 예전 선배화가들이 자연을 바라보았듯이 나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도시와 인간이 함께하고 일체화 할 수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전에 "인간과 나무가 하나가 되고, 나무가 인간과 둘이 아니었던 것" 처럼 말이다. 도시 속에 미물처럼 움직이는 인간들이 도시의 표정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있다. 거대한 산봉우리처럼 우뚝 서있는 빌딩과 인간의 크기의 구별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나의 화면 속에서 도시는 새로운 시각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의미를 얻어 가기를 바란다.

이 철 량 (Lee, Choul-ryang)

•2005 한 · 중 현대수묵전(서울시립미술관) •2006 중 · 한 현대수묵전(深圳 關山月미술관) •2007 한국화 1953-2007(서울시립미술관) •2010 MANIF SEOUL(Hangaram Museum)
•2011 한국화 옛뜰에 서다(한가람미술관)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황가리 335-1 •TEL : 011-650-9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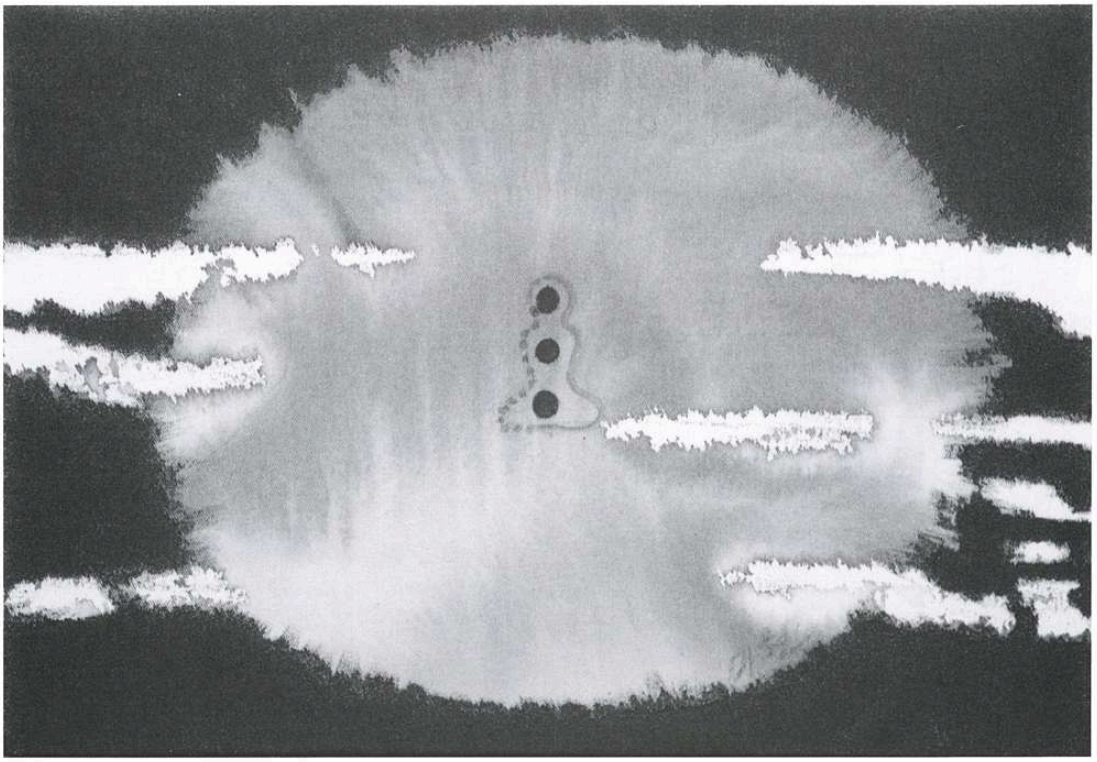


상생(相生)-합(合) / 60×90cm / 닥펄프에 금박, 채색

급속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순수 평면 회화만을 고집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만의 전통적인 한국적 사유와 미감(美感)을 탐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과 대단한 결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화는 다양한 모색과 탐색을 거쳐 자극적이고 현란한 여타의 매체 예술보다 오히려 더 잔잔하고 긴 여운의 감동을 던져 주고 있다.

이 철 규 (Lee, Choul-gyu)

•전주우석대학교 동양화과 및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16회(서울, 전주, 미국 등) •전북청년미술상 •대한민국청년미술상 • '한국의 미' 전(사비나갤러리, 서울)
•삼인삼색전(공평아트센터, 서울) •02|MANIF전(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풍경 · 산수 · 풍경 전(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전북도립미술관 – 엄뫼 – 전(전북도립미술관, 전주)
•상해아트페스티벌(라이프스타일미술관, 상해) •홍콩호텔아트페어(만달린호텔특별전시관, 홍콩) •현) 예원예술대학교 미술디자인학부 교수
•주소 : 560-282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75-2 좋은하우스 2층 203호 •TEL : 070-7572-4247(집), 063-640-7205(연구실), 010-4279-3775 •E-mail : cicu111@hanmail.net



묵상-숨 / 25.8×17.9cm / 천에 수묵

작업에 대한 묵상(默想)

작업을 통해 바라다보는 '나'에 대하여...
작업을 하면서 느껴지는 '너'에 대하여...
생각한다.
물끄러미 바라만 보던 존재에 대하여 말을 건넨다.
무심히 일어나는 감흥에 힘을 실어 교감을 나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나'와 '너'의 교감이고 나눔인 것을...

정 미 현 (Jeong, Mee-hyun)

◦개인전 7회 ◦단체전 및 초대전 130여회 참여 ◦전북회화회, 건지전,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회원
◦현) 전주동중학교 재직 ◦주소 : 565-842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778번지 ◦전화 : 011-682-3560 ◦E-mail : hyun3560@hanmail.net

서학동에 깃드는 예술인들

김저운 (소설가)



지금 내가 존재하는 곳, 현재 머물고 있는 공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환경과 배경이 곧 정서의 텃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과 일터는 행복과 불행을 가름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일상을 지배하는 '집' 이야말로 더 말할 필요가 있으랴.
예술가에게 집은 쉼터이며 일터이다. 먹고 자고 쉬는 실용적인 공간으로 그치지 않는다. 전업작가는 물론,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에게 집 혹은 작업실은 창작의 산실이기도 하다.

전주의 서학동에 예술가 몇 사람이 깃들어 살기 시작했다. 화가 이경태 · 진창윤 · 한숙 · 정하영, 거문고 연주자 안은정,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하는 이형로, 그의 아내인 글쟁이 김저운(필자), 그리고 몇 주 전 귀향한 연극배우 이경은과 그의 남편으로 시인의 꿈을 가슴에 묻어둔 채 술을 연구하고 빚어내는 술 연구가 유상우….

불과 1~2년 사이에 앞집, 옆집, 혹은 10~20미터를 사이에 두고 예술가들이 모여 살게 된 것은,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운명이라면 너무 거창할까? 아니, 이 서학동이 우리를 찜해 놓고 있다가 불렀는지도 모른다.

이 대대적인 역사를, 이곳에 먼저 발을 디딘 순서대로 엮어볼까 한다.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겠다고 벼르며 오가던 무렵, 이상하게도 서학동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내게 온 첫 이미지는 '동네'라는 것이었다. 높고 화려한 건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적한 골목길 따라 따닥따닥 붙은 나지막한 집들. 무 배추 호박이 싱싱하게 자라는 담벼락 사이사이 손바닥만 한 텃밭, 그 가장자리를 정겹게 둘러싼 과꽃…. 노인 몇 분이 길가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한담을 나누는 모습도 평온해 보였다. 어느 집에서나 문만 열면 하늘이 보일 것 같았다. '서학동接鶴洞'이란 지명도 운치를 더했다.

전주 지역의 문화가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교동이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있어 남천교만 건너면 되니, 걸어서 불과 5~6분. 게다가 땅 값이 쌌다. 그 사이 여기저기 알아보았는데,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낑낑대며 한참 올라가는 곳도, 도심과 인접한 변두리도, 재개발지역이니 뭐니 해서 땅값이 턱없이 비쌌다. 이렇게 모두 한곳으로 몰려가는 사이, 이 동네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통에 소박한 옛 모습 그대로를 묵묵히 지녀왔던 것이다. 그야말로 문화의 사각지대였다. 우리 부부는 이 동네에서 한옥 한 채를 샀다. 낡았지만 비교적 땅이 넓어 큰 마당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뻤다. 처마 밑까지 우거진 철쭉이며 향나무 같은 것들을 모두 쳐내니 마당이 훤해졌다. 비틀어지고 썩어가는 기둥들을 튼튼한 목재로 바꾸고 기와도 새로 얹었으며 흙으로 벽을 쌓았다. 공사를 하는 여덟 달 동안 행랑채에서 임시로 살았다. 공사 현장에 거주한다는 게 내게는 무엇보다 힘들었다. 그러나, 일이 끝난 저녁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먹고 막걸리 한 잔 하던 일, 머리 위 빨래줄에 주렁주렁 빨래가 널려 있는데 그 아래 밥상 하나 놓고 대여섯이 모여 밥 먹던 일들이 되레 재미있었다고들 말한다.

작업실까지 갖추어놓는 데 거의 일 년이 지났다. 그 동안 옮겨 심은 감나무며 모란이 잘 자라 내년에 잎이 나야 일은 끝나는 셈일 게다. 우리가 집짓기를 시작했을 때, 이경태 화백도 근처에 집을 하나 샀다. 모악산 화실을 오래 지켜왔는데 너무 멀고 비워야 할 때가 되어 고민하던 중이었다. 우리 '예술가 경제'로는 집을 산다는 게 버겁기 마련이나, 역시 다른 곳에 비해 값이 싸서 다행이었다.



진창윤 화가는 혼자서 거의 이 공간을 만들었다.



추운 날, 적요 화백의 작업실에 모여 군밤타령도….

그의 감각과 안목으로, 길가에 방치돼 있던 음습한 공간은 멋진 아틀리에로 변신했다. 집의 바깥이며 내부는 온통 하얗게 칠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을 '지중해와 그리스 식의 느낌을 살려내고 싶었다'고 한다. 나는 '서학동 백악관'이라 놀려대고….

'적요寂寥'. 이는 이 화백이 최근 쓰고 있는 이름이다. 아직도 내겐 '경태 선생님'이 친근한데, 그는 은근히 강요하는 눈치다. 이경태, 아니 적요 화백은, 온통 하얀 이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다.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고, 커피를 마시며 사는 모습은 외로움도 화려해 보인다. 날씨, 계절, 세상의 모든 일에 민감한 사람. 기쁨도 우울도 그에게 가면 치명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인지 이 공간에서 마시는 커피는 '전설 바다의 밤 물결'처럼 가슴 속으로 흘러든다.

화가 진창윤 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 동네로 이사 온 내력을 얘기했더니, 그도 삼례 아파트를 팔고 오겠다고 했다. 마침 골목 안에 숨어든 한옥 한 채가 나왔던 터였다. 그는 담백한 성미대로 정말 쉽게 정했다.

그때부터 그의 노동이 시작되었다. 며칠 큰 공사만 인부를 사서 해 놓더니, 대부분의 일들은 혼자 해결해 나갔다. 벽을 털고 바르고, 천정 한쪽엔 하늘이 보이도록 창을 내고, 화장실엔 타일 조각들을 모아 모자이크 하고,



김저운 · 이형로 부부의 집 〈벼리〉

문을 고치고, 페인트를 칠하고…. 일을 하다가 민예총 일이 있으면 중단하고 나갔다. 벽에 바람이 씽씽 불든 비가 새든. 일요일마다 고백교회에 나가 예배 보고, 전시회도 열었다. 그리고 또 집일을 했다. 이사한 지 일년이 다 돼가건만, 아직도 손 보아야 할 곳이 많다고 한다. 이 일들이 다 끝나야 노총각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화가 한숙은 우리 집 길 건너 커다란 한옥 한 채를 구입해 들어왔다. 본채 옆 가게 자리였음직한 사랑채가 있어 작업실로 쓰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어릴 적 한옥에서 자랐다는 한숙은, 거리낌이 없는 듯했으나, 그녀의 남편 재윤 씨는 처음엔 몹시 망설이는 눈치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도 매우 흡족해 하는 모양이다.

얼마 전에 우리가 키우는 진돗개 쇼팽과 왈츠 사이에서 새끼 다섯 마리를 얻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그 집에 주었다. 그놈은 어느 덧 제법 자라서 어쩌다 내가 가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뒹군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집 개의 친정이 된 셈이랄까?

거문고 연주자인 안은정도 이 거리의 주민이 되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서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집을 구하러 다닌다고 했다. 왜 이곳을 택하려느냐 물었더니, "다른 데보다 싸니까요." 했다. 우리는 길가에 서서 한바탕 크게 웃었다.

술 잘 마시고, 유난히 크게 잘 웃는 안은정은 주말마다 시댁이 있는 목포에 가느라 자주 보진 못한다. 그러나 언제든지 지나가다가 담 너머로 고개를 빼고 "선생니임~" 하고 불러댄다.

한 달 전, **이경은 유상우 부부**도 이 거리 끝의 이층집으로 이사했다. 경기도 고양에서 5~6년 살았는데, "언니, 우린 다시 전주로 갈 거야." 하면 난 콧방귀를 뀌었다. 모두 말로만 그러는 것이려니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지켰다. 이제 유상우는 더 좋은 술을 연구하고 빚어내기를, 이경은은 다시 연극 무대에 서기를 고대해 본다.

서학동. 남고사와 초록바위 사이의 이 마을에 우리가 조심스레 비집고 들어왔을 때 이웃 사람들은 넉넉하고 따순 품으로 품어주었다. 생각할수록 고마운 일이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일에 열중하다가, 시간이 나면 서로를 찾는다. 연장이 필요하면 빌리고,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 하면 도움을 청한다. 맛있는 게 있으면 나눠먹는다. 커피는 이경태 화백의 아틀리에에서 마실 때가 가장 풍부하고 맛있다. 주말이면 모여서 술 한 잔 나누는데, 어김없이 노래판이 벌어진다. 노래 한 자락 가슴에 품고 돌아가다가 그래도 열정이 남으면 교육대학 근처 생맥주집에 가서 다시 목을 축이기도 한다.

가끔 음모를 꾸미기도 한다. 이 동네에 더 많은 예술인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길가의 건물이며 담벼락을 모두 그림이나 조각으로 바꾸면 어떨까? 골목음악회나 거리 전시회를 열어보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두 길거리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는 작은 축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아직은 제각기 집안 정리며 할 일에 바쁘니 내년부터는 뭔가…. 그런 말이 나올라치면, 아! 나부터 머쓱해진다. ▣





한숙의 작업실 앞 정경

* 필자 김저운은 전북 부안 출생으로 전북작가회의 회원이며,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저서) 산문집 〈그대에게 가는 길엔 언제나 바람이 불고〉 등이 있다.

좀 게으른 자의 반 미친 이야기

이구학 (수필가)

내가 나를 보았을 때에 세 가지 특질이 있다. 좀 게으른 편이고, 가끔 미치길 좋아한다. 그런 까닭에 무슨 일이든지 단순화하길 좋아한다.

이런 특질은 아내를 만났을 때에도 그대로 발휘되고 만다. 좀 게을렀기에 이 여자 저 여자 뒤를 쫓아 다닐 수 없었으며, 미치길 좋아하고 단순화하길 좋아하니 이"한 여자"꽁무니만 따라다닐 수 밖에…. 그녀를 만나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자 나는 적당히 게으름을 피우면서 이 "한 여자"에게 미치기 시작했다. 만나는 여자도 이 한 사람으로 단순화하면서…. 그래 첫사랑은 맺어지지 어렵다는 세간의 통설(?)을 뛰어 넘어 장장 7년여의 교재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방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두고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어찌어찌 하여 집에 PC를 들여놓은 다음에도 이런 특성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사랑하는 아내는 침실에 혼자 두고 2층 서재에서 창문이 훤 해오도록 밤샘을 부지기수로 하던 중 아, 이 무슨 불행인가. "부전자전" "부전여전"이련가. 애들과 PC앞 자리다툼을 하게 된다. 이 녀석들도 지 애비를 닮아 좀 게으르고 미치길 좋아하며 단순화하길 좋아한단 말인가? 별 수 없지. 지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지 애비를 닮을 수밖에….

PC를 장만할 당시, "애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3개월쯤은 게임이든 뭣이든 저희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는 H대학교 전산학과장의 말을 믿고, 학교공부가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고 꾹꾹 눌러 참을 수밖에…. 그런데 이건 또 뭔가. 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키보드를 박살내곤 하는 것이었다. 80년대 초였으니까 집에 PC가 있는 집은 드물었기에 PC를 들여 놓았다고 하니 이 녀석들 친구들이 몰려올 수밖에…. 결국 친구들과 함께 두드려대니 키보드도 지칠만했다. 방법을 연구해야만했다. 당시 PC는 8비트에서 286으로 막 넘어오던 시점이라 지금의 튼튼한 키보드와는 품질이 근본적으로 달라 조금만 험하게 다루면 자판이 먹히질 않곤 했다. 몇 번을 고쳐다 주곤 했으나 이틀을 견디지 못했다. 결국 이 녀석들의 불똥은 PC판매점으로 옮겨 붙게 된다. 한 열흘쯤 왔다 갔다 하자 판매점 사장도 지쳤는지



이 구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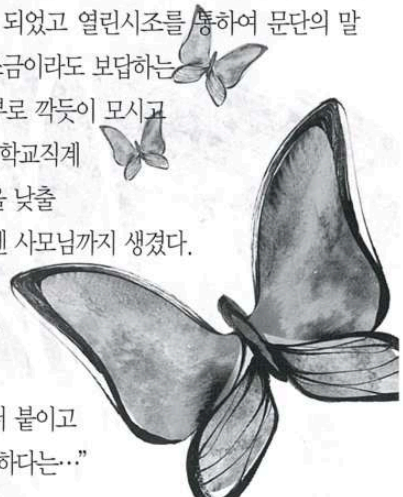
전북 순창출신. 제26회 샘터시조상 장원, 〈계간 열린시학〉 시조 등단.〈계간 문학춘추〉 수필로 등단했다. 현재 '현대시조포럼' 전문위원, '시조월드' 편집위원, '서은문학회' 및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부회장, '오늘의 시조학회', '한국동시문학회', '광주수필문학회', '한국문협', '광주문협' '순창문협'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형시집「가면의 나라」(도서출판 고요아침)가 있다. 인터넷 시조동산 'http://user.chol.com/~vvkab085/'를 운영하고 있다. 조선대와 호남대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묘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가지고 간 키보드를 고쳐주더니 여벌로 두개를 더 주면서 두개가 고장 나면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정도만 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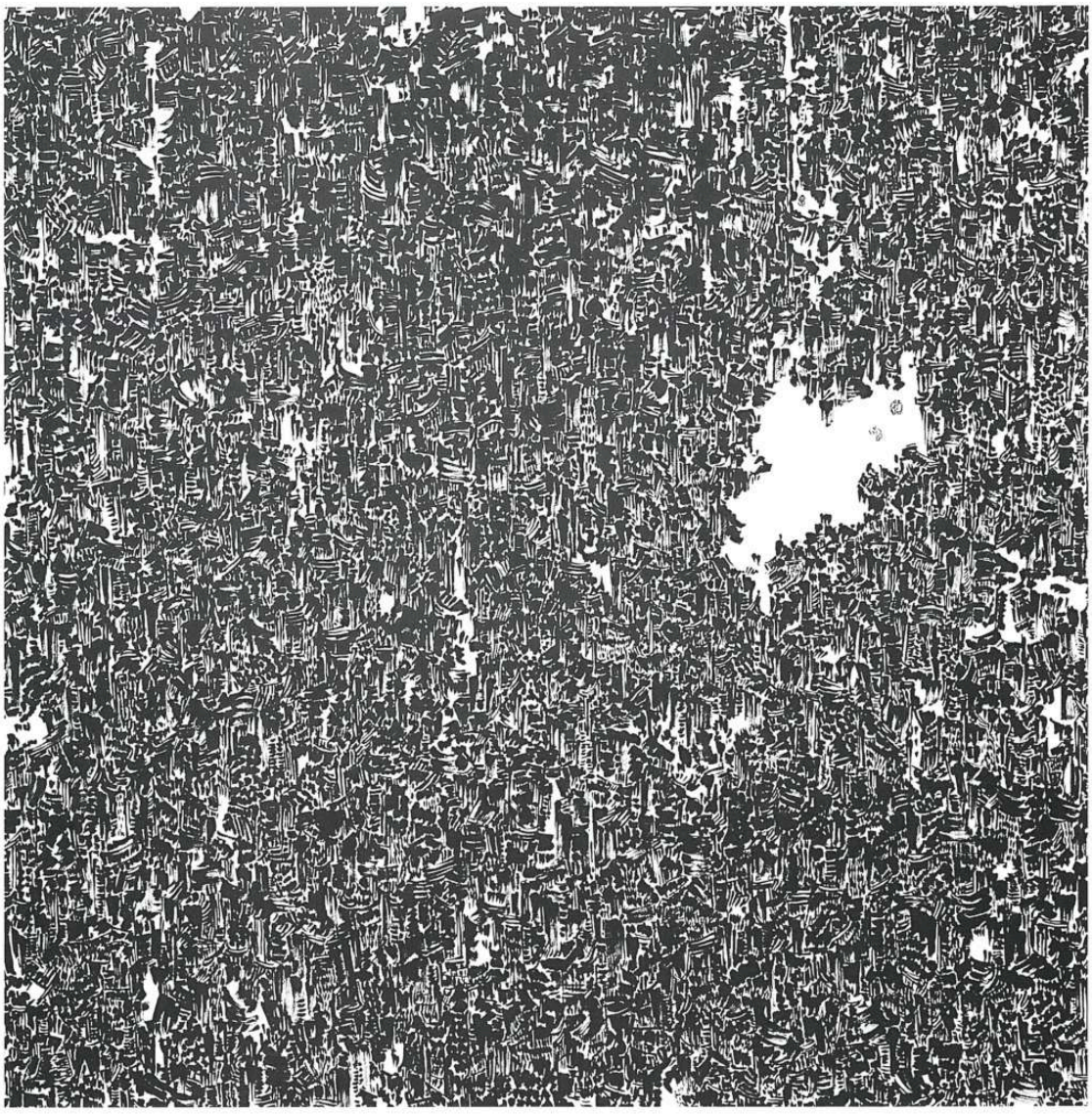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결과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 녀석은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다 지금 군복무 중이고, 큰 딸애는 애니메이션 계통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작은 딸애도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일을 할 정도가 되었다. 물론 나도 차를 탈 때이면 노트북을 조수석에 안전벨트로 정성껏 모시고 다닐 정도이니까 이 노트북이 내 전용 비서인 셈이다. 물론 옆에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이고… 각설하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자. 지천명의 강을 중간쯤 건너던 어느 봄, 주말이었다. 고향 선배이자 소설가이신 K형과 우연히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다. 반주도 곁들여가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대뜸 "형! 요즘 무슨 재미로 살아?"라는 질문을 던졌다. "왜, 자네가 요즘 별 재미가 없는 모양이지?"하시며 그분이 회장으로 이끌고 있는 "삶과 문학"이란 문학동인에 가입하라고 권했고, 그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민이었다. 일단 문학동인에 가입한 이상, 어떤 한 장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무가 내게 주어졌으니 말이다. 가끔 신문의 시론이나 칼럼을 썼던 적이 있어 "수필"공부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매월 J일보에 나왔던 시조를 관심 있게 읽었던 기억이 났고, 마침 "삶과 문학"동인에 시조시인인 P씨가 있어 시조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시조와 연을 맺은 나는 시조공부를 시작하면서도 앞의 세 가지 특질을 그대로 발휘하고 만다. 광주시내 서점과 J, H대학교의 도서관을 뒤지며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으나 읽을 만한 책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시조를 취급하는 중앙일보, 샘터, 금호문화, 열린시조 등의 작품 평들 중 중요내용들을 메모해가면서, 다시 대학교의 도서관을 뒤져 시조 관련 논문을 찾아 복사하여 읽어대며 거기에 보태가는 한편, 우리말 공부를 하기위해서 국어사전의 ㄱ부터 ㅎ의 끝까지 읽어가며 그 가운데에 순 우리말 중 내게 낯선 낱말들을 노트북의 엑셀 프로그램으로 단어를 새벽까지 정리하기도 했다. 그것이 지금은 1만 6천여 단어로 정리되어 한권의 우리말"사전"이 되어 있고, 시조공부를 위해 메모를 해갔던 것들은 "처음 시조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여러 시조관련 인터넷사이트와 내가 그 후 또 한번 푹 빠져서 만든 "시조동산"이란 사이트에서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다.

물론 시조습작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되지도 않은 습작을 가지고서 P시인만 괴롭혔다. 주말이면 내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할 때 순한 P시인은 거절하지 못하고 나오곤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 나이는 20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알고 보니 내 고교 동기동창의 제자가 아닌가. 그런데도 "소사부(小師父)! 소사부"하며 졸라대니 할 수 없었으리라. 처음 미팅 때에는 말한 마디 없이 그저 멍하니 내 얼굴만 쳐다보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 후 매주 주말이면 만나서 지도를 받곤 했다. 당시 소사부께서는 미혼이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물론 소사부 말고도 그 밖의 여러 시인들께도 무수히 누를 끼치기도 했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샘터시조상 장원도 하게 되었고 열린시조를 통하여 문단의 말석에 발을 딛게도 되었다. 샘터상 수상소감과 열린시조 당선소감에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뜻에서 P시인의 실명을 쓰면서까지 "소사부(小師父)"께 감사를 표현했고 지금도 사부로 깍듯이 모시고 있다. 그 후에 만나는 시조시인들은 억울하리라. 전라도 정서상 문단 선배이더라도 학교직계 선후배사이이거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옆의 사람들과의 관계 등으로 여지없이 말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내 소사부께서는 그 후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내겐 사모님까지 생겼다. 앞으로 내가 내 허물을 벗을 때까지 영원히 "소사부" "소사모"로 계실 것이다.



공자 왈(孔子曰) 지지자 불여호지자(知之者 不如好之者)요, 호지자 불여락지자(好之者 不如樂之者)라 하셨다. 즉,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는 말씀이다. 필자는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다. 락지자 불여광지자(樂之者 不如狂之者)라고. 즉, "즐기는 자는 미치는 자만 못하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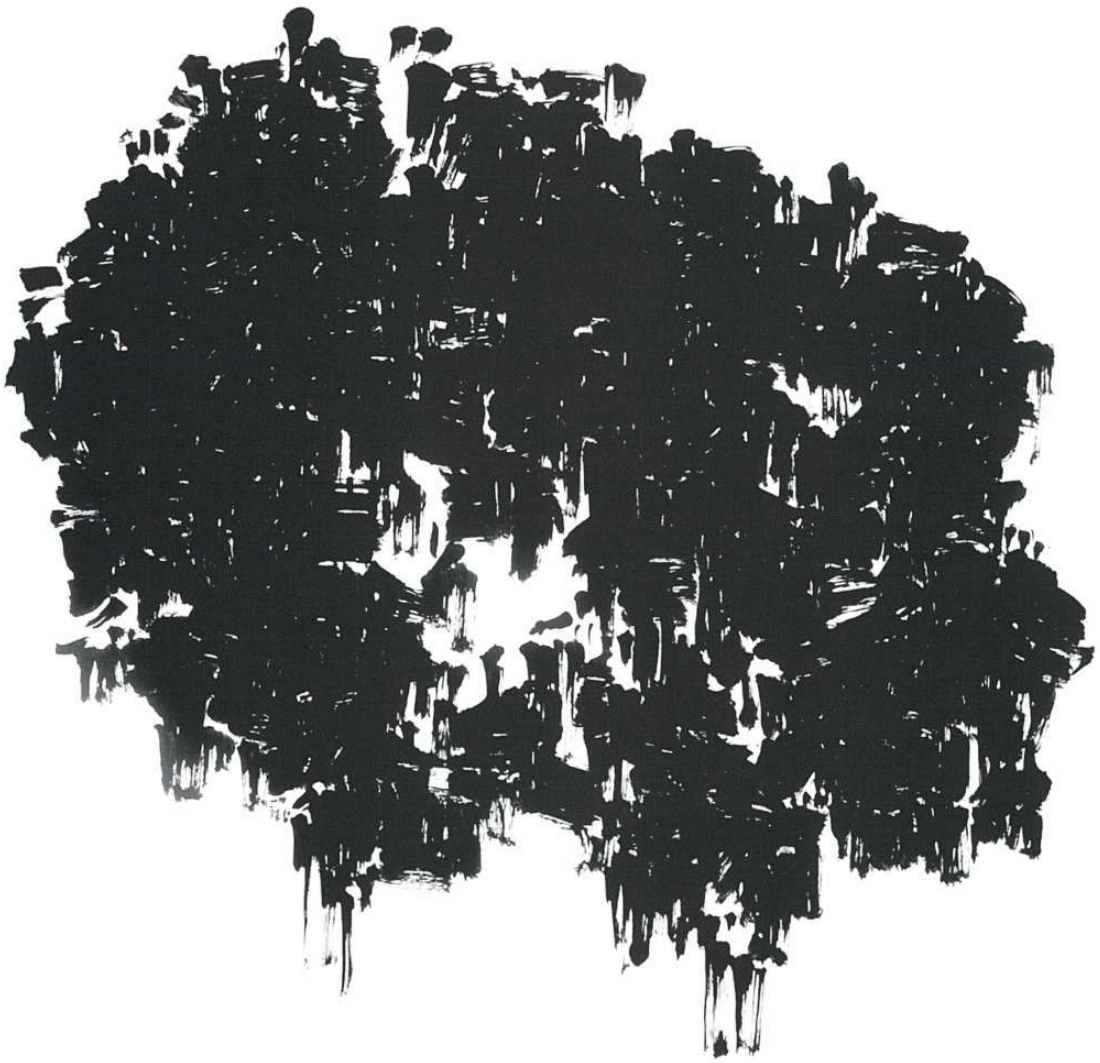
신시 / 180×180㎝ / 캔버스에 먹

이철량 개인전

2011. 9. 23 - 10. 6 ◯ KBS전주 모악홀

◯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와 건물 숲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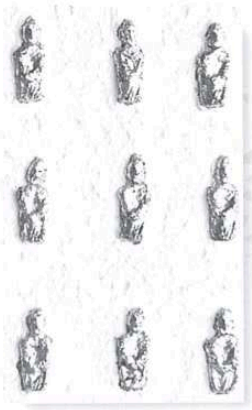
회화적 표현과 삶에 대한 사유를 수묵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도시와 인간이 함께하고 일체화 할 수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전에 "인간과 나무가 하나가 되고,
나무가 인간과 둘이 아니었던 것" 처럼 말이다.
도시 속에 미물처럼 움직이는 인간들이
도시의 표정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있다.
거대한 산봉우리처럼 우뚝 서있는 빌딩과
인간의 크기의 구별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나의 화면 속에서 도시는 새로운 시각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의미를 얻어 가기를 바란다.



holy city / 73×91㎝ / 캔버스에 먹



이철규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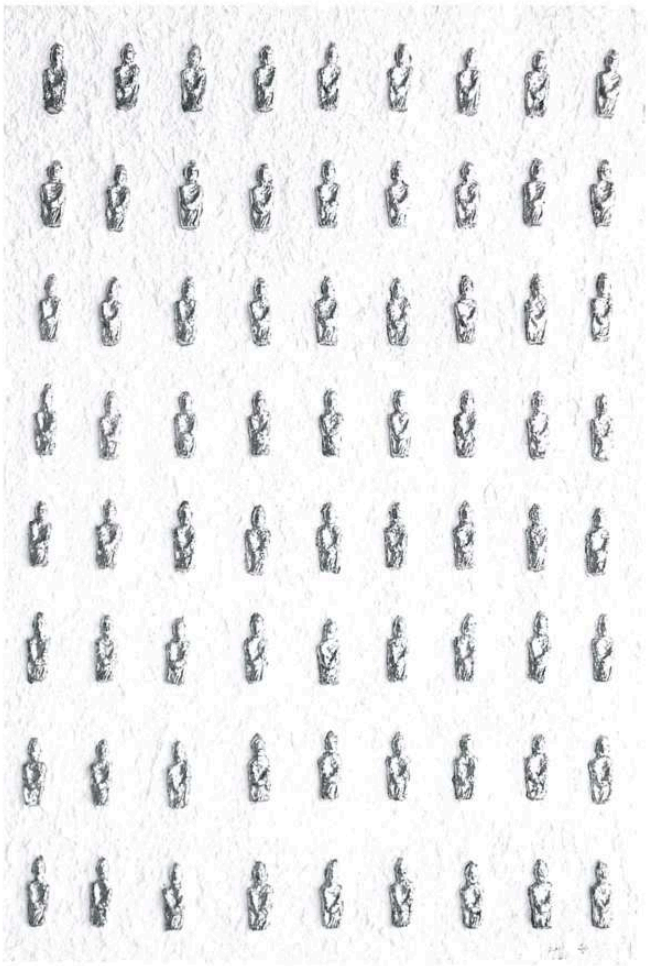
2011. 11. 16(수) ~ 11. 29(화)

백운갤러리 (서울 강남구 청담동 32-5 백운빌딩)

작가의 삶 속에서 혹은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내면세계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철규의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금'이라는 재료에 대한 다양한 의미 속에는 그 재료가 지니고 있는 물성(物性)을 직접적으로 체험함과 동시에 내재적인 의미의 정신성 역시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작가의 사려 깊은 의도가 깔려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속의 현대미술은 새로운 매체의 확장과 장르의 해체, 주제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다원화(多元化)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들이 숨가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급속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순수 평면 회화만을 고집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만의 전통적인 한국적 사유와 미감(美感)을 탐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과 대단한 결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화는 다양한 모색과 탐색을 거쳐 자극적이고 현란한 여타의 매체 예술보다 오히려 더 잔잔하고 긴 여운의 감동을 던져 주고 있다.

작가 이철규는 '금'이라는 재료가 가진 물성(物性) 그 자체에 빠져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이런 선입견은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 작가에게 있어 주재료가 되고 있는 금의 이런 일반적인 의미와 속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금'이라는 매체가 작가와 세계인 자연과 대상, 즉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은 '상생(相生)의 관계', '공존의 관계'라는 깨달음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매개체(媒介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자연과 인간, 산과 꽃,



상생(相生)-합(合) / 132×162cm / 닥펄프에 금박, 채색



상생(相生)-합(合) / 30×45cm / 닥펄프에 금박, 채색

해와 새 등의 소재 역시 이러한 관계 속에서 표현된 것들로서, 이런 경우 '금'이라는 재료는 때로는 여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의 작품 속에 표현된 소재와 색채 속에는 '물성(物性)'과 함께 '정신성' 역시 내포되어 있다. 그 속에는 작가의 삶 속에서 혹은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내면세계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이철규의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금'이라는 재료에 대한 다양한 의미 속에는 그 재료가 지니고 있는 물성(物性)을 직접적으로 체험함과 동시에 내재적인 의미의 정신성 역시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작가의 사려 깊은 의도가 깔려있다. ▣

(이태호, 미술평론가, 익산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



묵상-나무 112×145cm 천에 수묵

수묵(水墨)의 창(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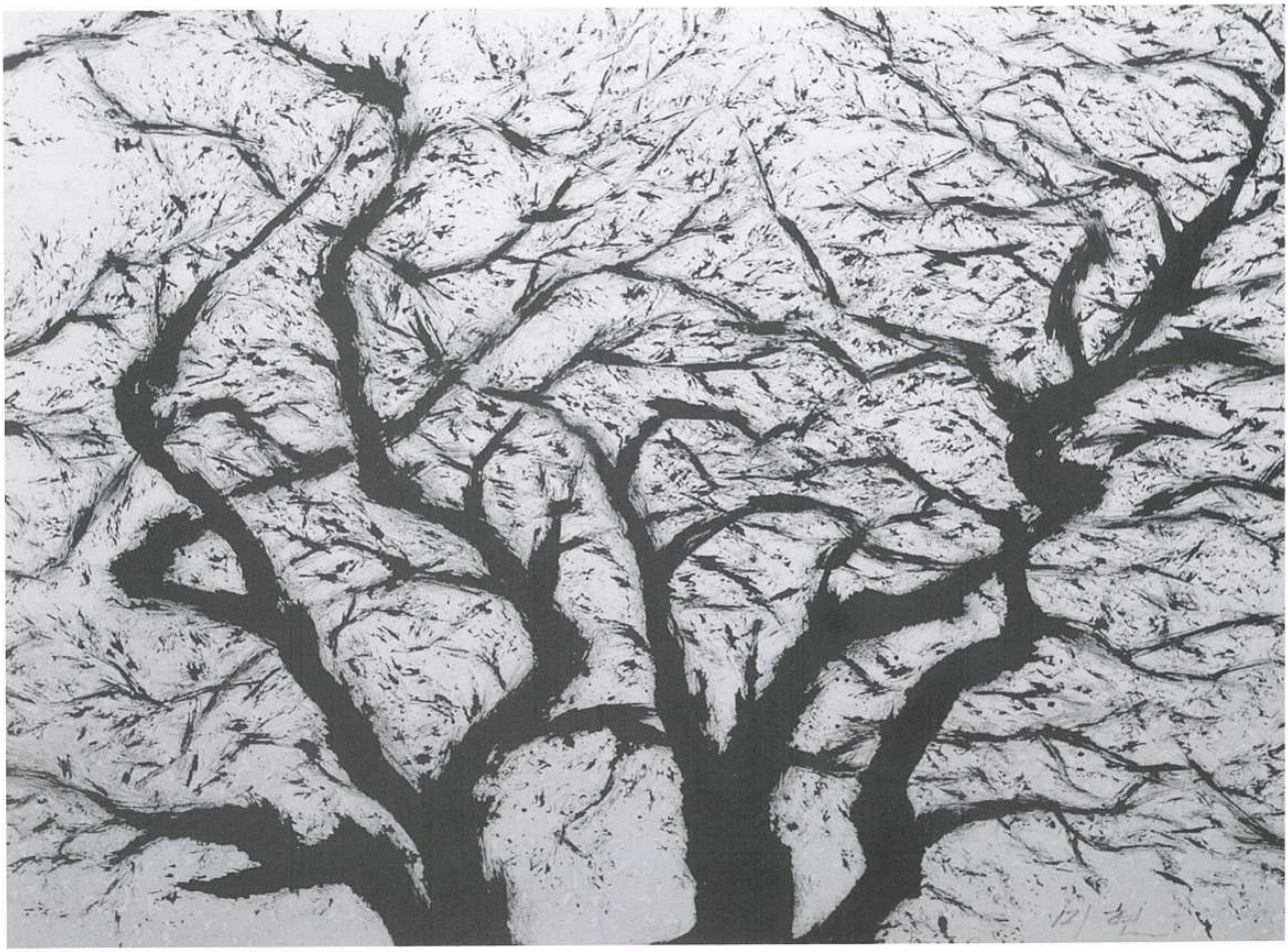
정미현 개인전

2011. 6. 7~6. 12 ◌ 교동아트스튜디오

기(氣)와 행위의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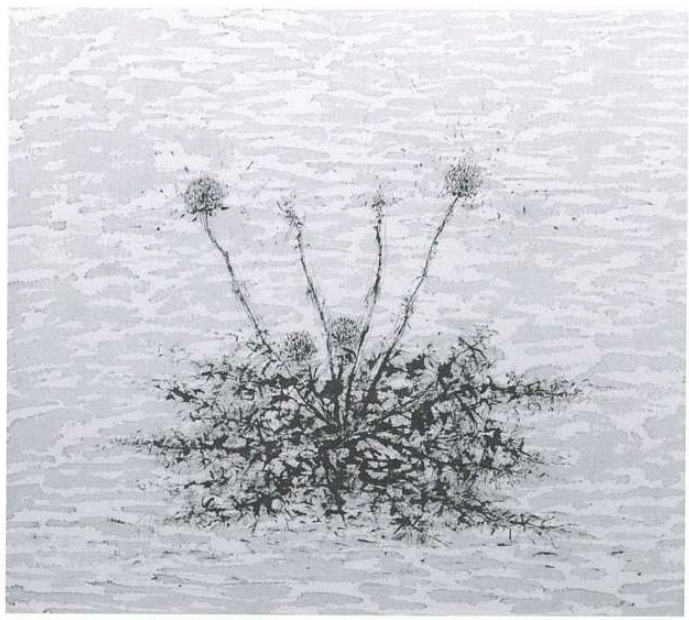
◌ 정미현의 회화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재료가 주는 특유의 한국적 질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검은 먹을 사용하여 한지 위에 붓 가는 대로 그려낸 듯 한, 그림들은 전통적 개념의 수묵화보다는 현대적 개념의 순수추상과 물파(物波)양식의 서체추상에 가깝다.

묵상-나무 145×112cm 천에 수





묵상-나무 145×112cm 천에 수묵



묵상-자연 50×50cm 천에 수묵

동양고유의 필묵양식의 하나인 문인화의 세 가지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는 간·결·운(簡潔韻)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여백이 많은 화폭은 공명 현상과도 같은 에너지의 강한 울림을 느끼게 한다.

작품에서 필묵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직관적 일회성에 의한 다양성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과 점획과 획선에 발묵법과 파묵법이 겹쳐 있다는 점이다.

천의 거친 표면에 먹을 주조로 배어든, 거의 반 추상에 가까운 다양한 형상들을 격렬한 붓놀림과 수묵의 무게감, 대담하고 현대적인 화면구성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교착된 갈등 지점들을 클로즈업시키고 있다.

그녀의 화면이 극도의 긴장 속에서 평온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일회적 판화라 할 모노 타입과도 관계가 있다. 먹이 천에 스며드는 것은 자연과 세월의 무게가 화면에 거울처럼 배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자연과 세월 속에 녹아 있는 방증이 된다. 그래서 그녀의 작업은 그토록 자연스럽다. 이러한 직관적 표현수단에 담은 작업 내용은 형상의 유비를 통한 인생 태도, 심미적 경계, 감정의 기복 등을 전달하는 것이다. 대상의 모습이 무엇을 닮았거나 무엇을 연상시키거나 무엇을 유추하게 하는 형상사유는 인류의 가장 기초적인 감정 교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필획의 리듬은 점과 선이 만들어내는 조화 속에서 때로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자유분방한 필치로 먹의 흐름을 꾸며낸다. 어떤 때는 사람이나 바위 혹은 새, 해 같은 이미지들과 어울려 흐름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모두 완벽한 형태를 갖추거나 구체적 이미지들을 불러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 풍경 모습들은 외적 시선이 아니라 내적 시선이라 불릴 만하다.

근작들에서는 대상의 이미지를 떠올린 직후에 즉발 적으로 화면에 옮기는 이미지 연상과 추적에 의한 이미지 회화의 면모를 보여준다. 따라서 사물의 골격이 중시되고 매재 자체의 재질 및 성격과 묵과 천 사이의 반응 효과가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다. 결론적으로 그녀의 회화는 기(氣)의 회화이자 행위의 회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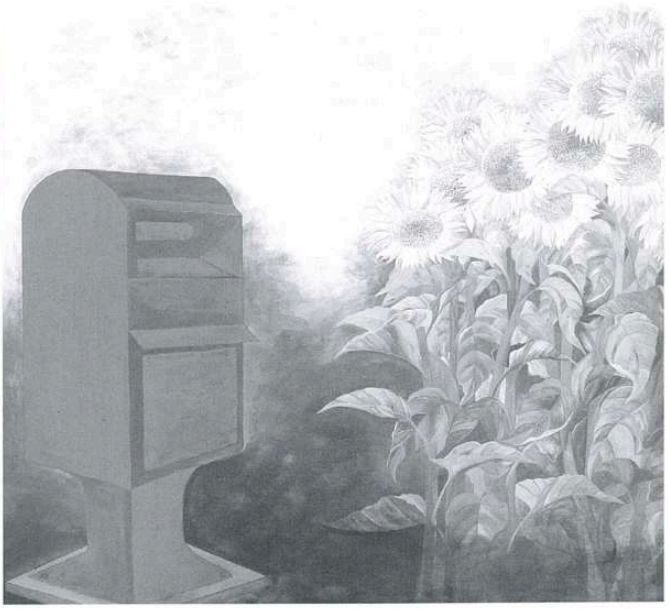
선(仙)적인 몽환의 세계와 선(禪)적인 고고한 정신세계를 동시에 보여주기도 한다. 동양화의 세계가 구축해 온 미의 세계를 계승하면서 현대적인 운필을 사용하여 작가의 고유한 미감을 드러내며 동향화의 미덕이 전통의 계승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대라는 작가의 활동 배경이 주는 독특한 미적 감각과 사고, 그리고 작가 특유의 은유의 미학을 동양화라는 틀에 접목시킨 결과이다.

그리려는 궁극적인 대상은 결과적으로 그 대상의 외피적 모습이 아닌 대상을 통해 그려내는 정미한 가슴에 담긴 세계이다. 그리고 이 세계는 무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원리로 드러나는 세계이다. ▣

김선태(미술평론가)



꿈 / 162.2×130.3cm / 장지, 먹, 채색



이 가을을 보내며 / 53.0×45.5cm / 장지, 먹,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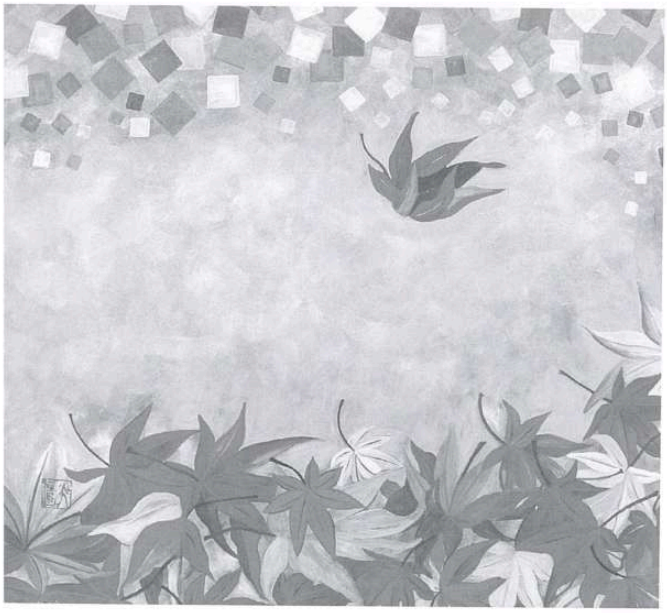
이광원
개인전

전시기간 : 2011. 10. 19(수)~10. 25(화)
초대일시 : 2011. 10. 19(수) PM 5:00
전시장소 : 모로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산다는것은_꿈과_희망을_갖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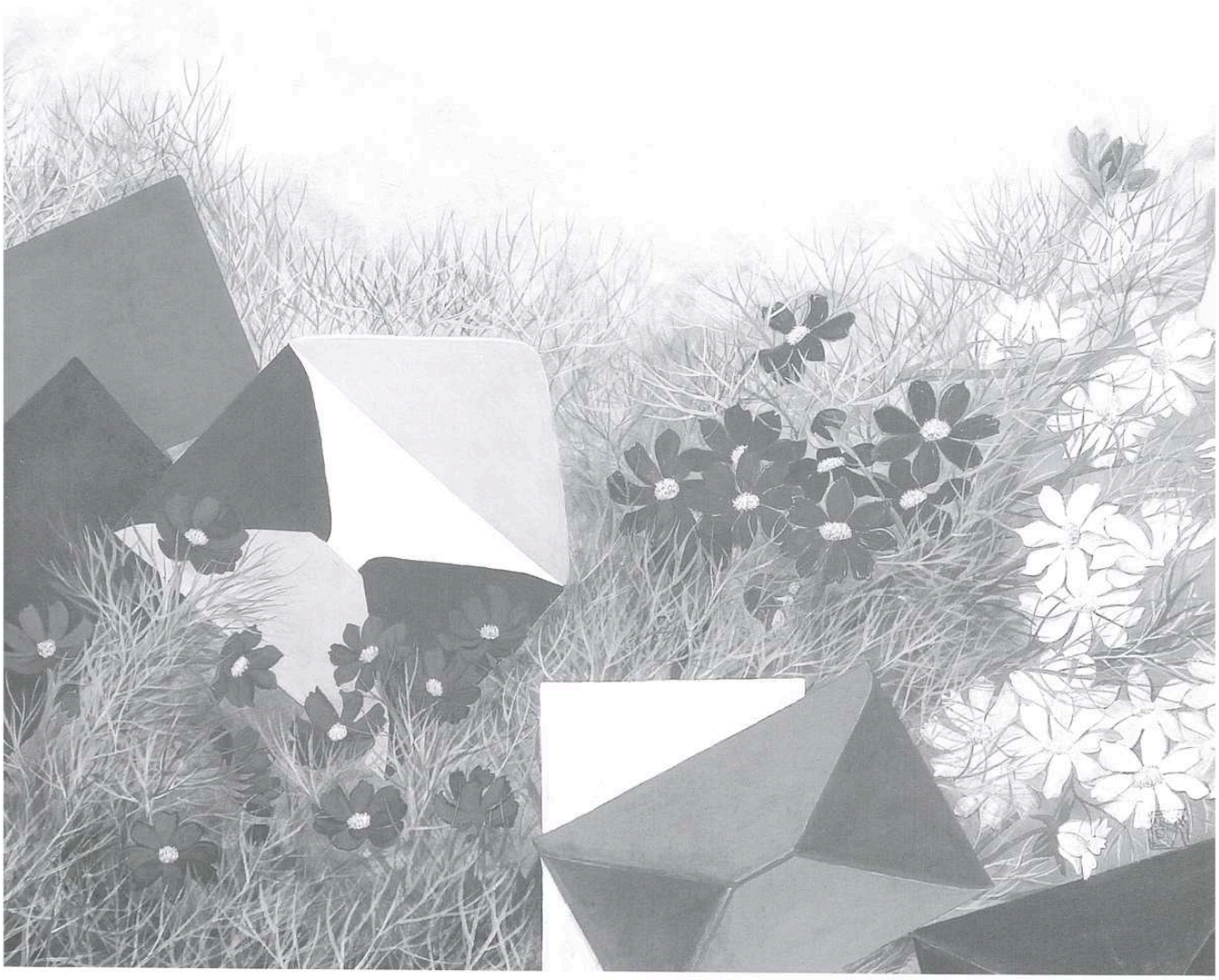
꿈을 실현하고자 용기를 내었다.
사랑을 전하고 그리움을 알리고 마음의 아픔을 달래주고자 할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어울려 그속에 융화되어 작업했다.
연륜마다 겪어야 할 인생이 있듯이
간절한 소망과 함께 의미있게 살고자 한다.
이 겨울에도 아름다운 빛깔이 있듯이
이 세상과 함께하는 날까지
아름다운 색채와 함께 할 것이다. ▣

가을편지 / 72.7×60.6cm / 장지, 먹,



회상 / 53.0×45.5cm / 장지, 먹, 채색

연륜마다 겪어야 할 인생이 있듯이
간절한 소망과 함께 의미있게 살고자 한다.
이 겨울에도 아름다운 빛깔이 있듯이
이 세상과 함께하는 날까지
아름다운 색채와 함께 할 것이다.





개 dog / 130×162cm / acrylic on canvas

'지도 없는 여행객'

박성수
개인전

2011.6.24-7.24 ◎ 갤러리 보라

박성수는 일상에서 얻은 소소한 인상을 캔버스에 간결하게 묘사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가령, 영화나 TV 드라마의 장면, 스포츠 경기의 인상 깊은 장면, 혹은 지인, 친구, 가족, 일상 풍경 등을 아크릴 물감으로 묘사하는데, 여러 개의 단순화된 면을 이용해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박성수는 원래 동양화를 전공했고 더구나 추사 김정희처럼 최소한의 절제된 화법에 지극한 영향을 받았거니와, 겸재의 실경산수의 정신, 즉 실제로 있는 현상을 마음에 담아 그리는 방법에 감화되었다.

공자가 옛적에 초상화에 대해 평가한 유명한 말이 바로 '문질빈빈(文質彬彬)' 인데, 이 말은 "질(내용, 본바탕)이 문(형식, 꾸밈새)을 압도해버리면 촌스러워지고(거칠어지고), 문(형식, 꾸밈새)이 질(내용, 본바탕)을 압도해버리면 추해 보인다. 꾸밈새와 본바탕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다음에야(문질빈빈), 참으로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라는 뜻이다.



자화상 self-portrait / 153×120cm / acrylic on canvas



나무 tree / 153×120cm / acrylic on canvas

이는 예술창작을 하는 모든 동아시아 사람들의 영원한 과제이자 이상이다. 박성수 역시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조화를 꾀하며,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본질의 깊이를 파악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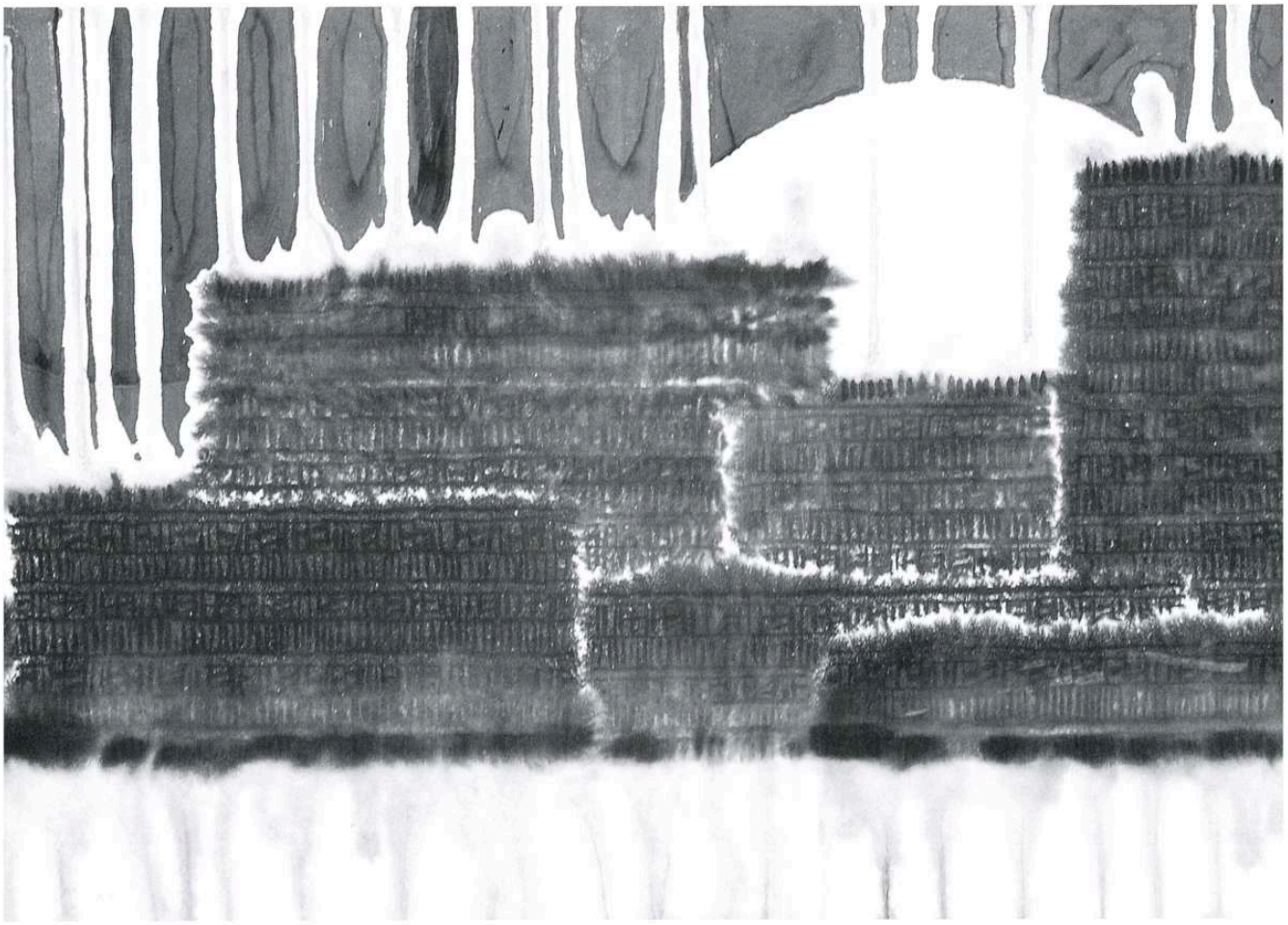
또 하나, 박성수는 "아시아적 가치인 '문질빈빈', 추사 전통의 간결화법이 글로벌 감수성에 과연 통용될 수 있겠는가?"라는 화두를 붙든다. "인종, 민족, 남녀, 계급,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적 보편성이 우리의 사유로 얻어낸 형식으로 통용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바로 정직하고 솔직할 때 가능하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 솔직하며 자기의 대상에 정직한 태도를 견지할 때만이 가능한 속성일 것이다. 박성수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다. ▣

● 박성수는 1980년생이다. 의례 80년대생이라 하면 N세대로 불린다.

컴퓨터를 능숙하게 하며 영어회화가 기본이고 글로벌 감각이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르다. 다만 정치, 사회, 역사적 관심이 사라진 세대이다.

삶의 총체적 문제보다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한 다원주의 옹호의 세대다. 이는 니체가 130년 전 '최후의 인간'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최후의 인간은 후기 자본주의에 적합한 인물이다. 최후의 인간은 자기 라이프스타일의 추구, 소비 패턴의 특수화, 자본의 획득, 안락한 일상, 쾌락에의 긍정, 창조보다 소비를 즐기는 풍조 속에 사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성수 역시 최후의 인간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거대담론을 추구하지 않는 맹점을 지닌다. 더구나 일상에 대한 자기 감수성을 창작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의 특수성을 이제 기존 세대들이 나무라지 않고 감싸줄 때가 된 것 같다. 정치적 오믈렛보다 개개의 살아있는 달걀이 더 미래적이기 때문이다. 박성수라는 달걀에서 깨어날 새 세대의 형상을 지켜볼 일이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의 제목을 '지도 없는 여행객'이라고 지었다.



검은 도시 / 20호 / 장지, 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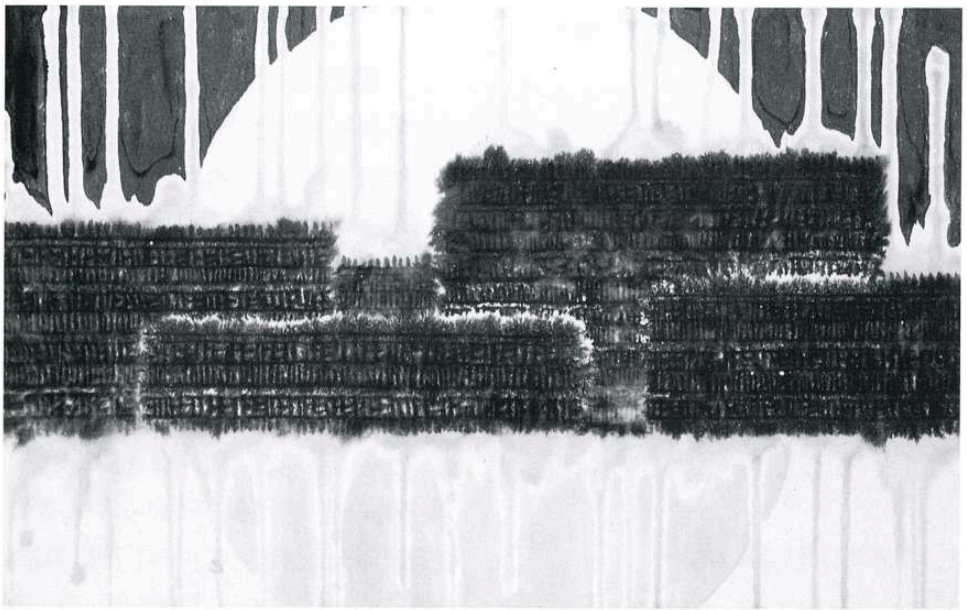
Black city

고형숙 개인전

2011. 11. 23 - 11. 29 ○ 서신갤러리

현재 나의 작업은 우리가 거주하고 생활하는 도시를 주된 테마로 하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현대의 사회에서 도시는 일상적인 풍경이다. 현대화 이후 도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도시 문명은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도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다양하다.
현대인이 누려야 할 새로운 낙원, 자연을 파괴하는 요인 중의 하나, 현재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욕망의 산물, 끝없이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꿈의 공간...
나에게 도시는 이러한 다양한 시각 속에서 현대의 새로운 자연,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우리에게 꿈을 주기도 하며,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도시를 해석하고자 한다. ▣



검은 도시 / 20호 / 장지, 먹









도예가 이병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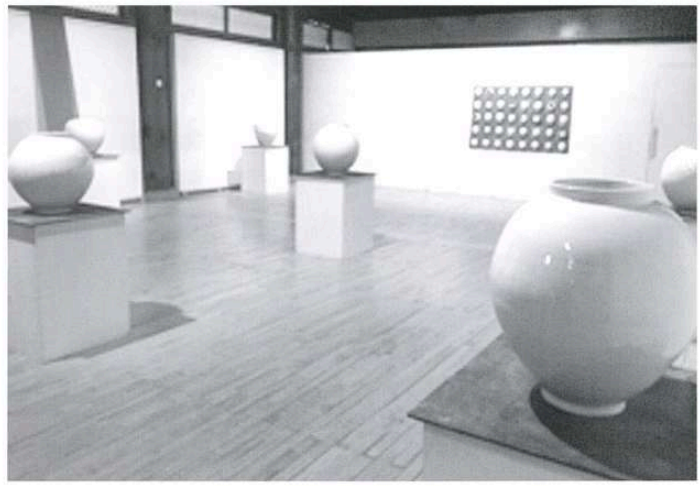
백자 달항아리, 그 색채와 형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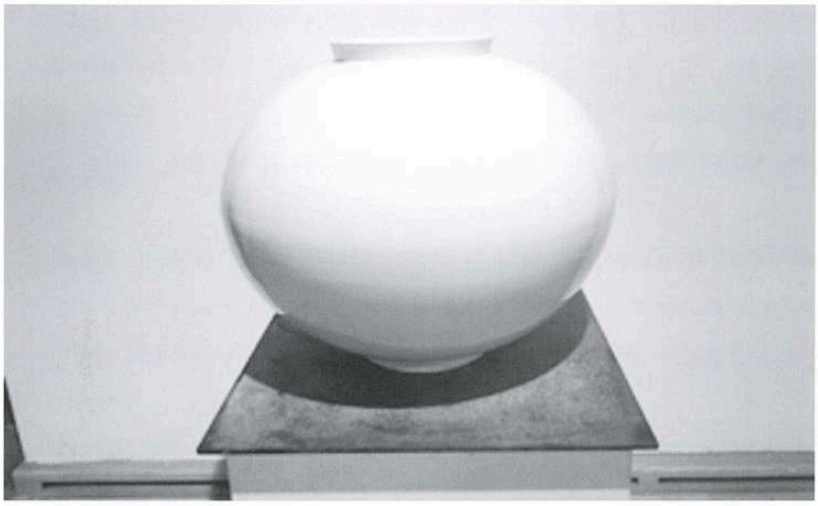
이명자 (전북회화회 회원)

달항아리는 원형에 가깝도록 둥글게 말아 올린 모양과 우유 빛 유약이 마치 달을 연상시킨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온화한 백색, 부드러운 곡선, 넉넉하고, 꾸밈없는 형태, 부정형의 정형 등 조선시대 백자의 특징을 담은 달항아리는 풍만하고 당당한 조형미가 일품이다. 기면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유약 고유의 빛깔과 그 형태만으로 멋을 내야 하는데 그 기품에서 느껴지는 단아하고 절제된 미감은 한국인의 민족성과 역사성, 예술성을 함축하고 있다 하겠다.

본래 달항아리는 무언가를 담는 기능적 실용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그 기능을 뛰어넘어 완전한 형태로서 조형적 형식도 무시되지 않는다. 이 조형적 형식은 色과 形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형태는 둥글다는 조형적 특징을 지니면서 완벽한 원의 형태와는 구별되는 부정형의 원이다. 의도적으로 계산된 형태가 아닌 욕심없는 기운이 손을 통해 빚어진 것이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달항아리는 인간의 보이지 않는 심상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식을 빌려 표현한 매개자라 할 수 있다.







백자 달항아리는 도자기라는 사물의
단순한 모습이 아닌 도자기라는 형식을 빌려
인간의 삶과 그 삶에 자연스레 스며든
철학적 정신을 담은 인간의 숨과도 같다.
항아리를 빚는 것이 아닌 내 삶을 빚는
백자 달항아리 작업을
나는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의도적인 표현이 가질 수 있는 날렵하고도 매끄러운 곡선이 아닌 가식없는 자연스러운 선으로서의 조형적 형식은 절제되고 내재된 미의 최소한의 표현이다.

그래서 백자 달항아리의 작업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껏 품은 내안의 욕심과 기운이 形을 통해 표현되지 않도록 나를 절제하고 누르는 것이 몸에 익지 않으면, 인위적인 조형물의 결과가 주는 지루함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것은 보는 이에게 순간의 화려함에 매료되게 하지만, 오랜 조강지처가 주는 담담함과 편안함에 미치지 못함을 느끼게 한다.

백자 달항아리가 지닌 조형적 형태는 백의 색과 만나 그 예술적 개념이 정절로 승화한다.

「논어*팔정」에 회사후소(繪事後素)라는 말이 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을 만든 뒤에 한다"는 뜻으로 사람이 아름다운 자질이 있는 뒤에야 문식(文識)을 더할 수 있음과 상통하는 의미이다. 또한 조선시대 사대부는 백색을 선호하였는데 철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유학은 성리학의 검소함과 질박함을 모범으로 삼았고 그 모범이 흰색과 잘 조화를 이룬다.

백색은 특징없는 무채색이 아닌, 없되 없음이 아니고, 있되 드러나지 않는 절제되고 품위있는 형식으로서의 표현체이다.

백자 달항아리는 도자기라는 사물의 단순한 모습이 아닌 도자기라는 형식을 빌려 인간의 삶과 그 삶에

자연스레 스며든 철학적 정신을 담은 인간의 숨과도 같다.

항아리를 빚는 것이 아닌 내 삶을 빚는 백자 달항아리 작업을 나는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

(글 : 이병로)

이병로 선생님은 임실 도화지도예원의 원장으로 현재 홍익대학교 박사과정에서 도예를 공부하고 있다.

임실 관촌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시절, 선생님의 학교 방문이 계기가 되어 인연을 맺었다. 그 뒤로 임실의 미인회 선생님들과 도자기에 대한 수업연구로 연구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기회가 늘었다. 도자기에 대한 친절하고 자상한 배려와 가르침이 인상에 강하게 남아 있다.

이번 이병로 달항아리전은 넉넉한 작가의 성품을 닮은 백자항아리의 아름다움을 만나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커다란 크기의 달항아리는 상단과 하단의 자기를 만들고, 다시 두 부분을 합쳐서 하나의 항아리를 만든다고 한다. 달항아리의 단아한 아름다움은 조선시대의 서민적이며 실용적 삶과 그 시대의 유교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작가는 말한다. 달항아리의 간결미는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소박한 조선시대 우리민족의 깨끗한 정신을 들여다보게 한다.

작가의 말을 빌리면, 달항아리는 물 김치를 담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조선의 달항아리는 일상의 용기로 만들어졌다. 그 달항아리는 일단 크기에서 주목받는다. 달항아리는 일상의 용기용 대형 그릇 중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놀라운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전세계 도예가들부터 달항아리는 그 모양의 독창성과 은은하고 도도한 색, 디자인의 근대성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달항아리는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중엽 사이에 만들어 졌고, 쌀이나, 간장, 또는 술등을 담아뒀거나 간혹 꽃병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한국만의 독자적 작품이다."

[출처] 백자 달항아리(Moon Jar)이야기|작성자mbsyoon

조선 사대부들이 가졌던 청렴하고 밝고 검소하게 살고자했던 정신세계에 대하여 작가 이병로는 그네들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달항아리 속에 그들의 정신을 투영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정신세계를 보다 윤택하게 하고 싶다고 말한다.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현대인이 곱씹어볼 말이다. 작가는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밝은 달항아리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밑바탕도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다.

작가는 관촌에 둥지를 틀기 전에는 주로 토기를 작업하였으나, 관촌 신전리가 조선시대에 백자를 생산하는 마을이었기에 그 맥을 잇고자 달항아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일반항아리들은 원심력에 의해서 대칭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인데 비하여 달항아리는 다 비대칭인 것이 특징이다. 사방이 비대칭이라서 여러변을 돌려가며 보는 것이 또한 달항아리의 매력이자 감상법이다.

한쪽으로 쏠릴 듯 한데도 같이 어우러져서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같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룬다. 우리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한국사의 모습 같기도 하다. 순탄한 적도 있었지만 어려움 속에서 흘러온 우리의 역사도 달항아리처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역사이지 않은가 생각한다.

작가는 남과 북이 하나되어 만남을 이룰 때 달항아리처럼 어우러지는 모습이 되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다. 달항아리는 작가가 자신의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달처럼 둥글면서 어우러져 달이란 말이 붙여졌다고 한다.

달에게 빌고 기대는 우리의 선인의 정신처럼 달항아리를 집안에 두고 바라보며 단순해지려고 한 우리 민족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정신이 배어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비대칭일 수밖에 없는 달항아리는 작가가 정형화하여 만들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비대칭이 이루어진다. 흙의 두께와 바람의 건조 및 불의 소성이 작가의 항아리에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준다. 정확하게 정형으로 만들려고 하여도 이미 만들어온 형태와 선을 의도한대로 만들 수 없다.

정형화하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불에 의한 소성과정에서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달항아리의 특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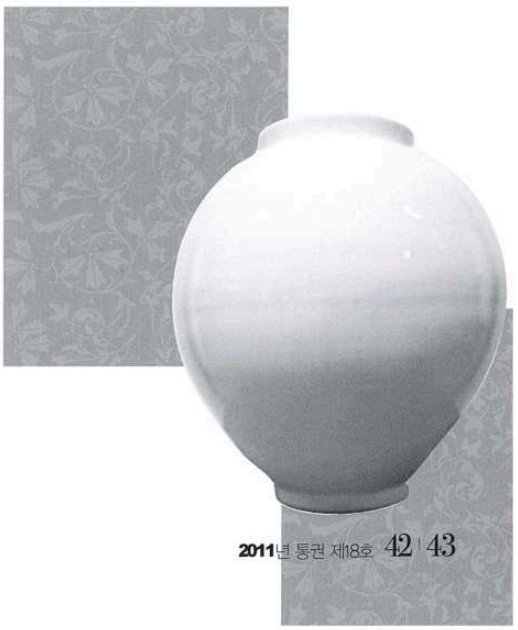
약간 비어있는 한국인의 미학, 여유 한국인의 정서가 돋보이는 달항아리의 아름다움은 예전 사대부들의 단순하고 검소하며 청결한 것을 추구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오늘날의 여유없음, 복잡함 속에서 달항아리의 단순함에 끌리는 것은 왜일까.

오늘날 외국인 등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달항아리 백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복잡함 속에서 여유를 찾고 싶은 마음의 투영이 아닐까 한다.

달항아리의 단순함이 주는 평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



달항아리의 단순함이 주는
평안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화가 이종만



안순금 (전북회화회 회원)

선생님의 작업실에 자주 왕래하던 때에 내가 가장 좋아했던 그림은 하얀 벽에 걸려있는 자화상이었다. 그 자화상을 보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소의 성품이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좋다. 꾸밈없이 소박하시면서 많은 걸 가지고 계시면서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며 과장되거나 거창하게 포장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화상이다.

그런 선생님과 4년 반의 시간(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재직 시)을 함께 보내면서 참으로 편하고 좋았다. 그저 옆에 계시기만 해도 힘이 되셨던 분. 그 자리에 조용히 계시지만 강력한 끌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특히나 내가 선생님의 작품에 더욱 더 끌리는 이유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직감과 찰나에서 오는 붓 자국의 강한 힘이다. 한국화에서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며 우연의 효과를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직관의 힘을 선생님의 모든 그림에서 느낄 수가 있다. 선생님 그림의 소재는 주변의 작은 것들인데 가까이에서 느끼는 자연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따뜻한 눈빛으로 보며 강력한 생명력을 전달하고 있다. 심지어 말라 스러져 가는 들에 핀 꽃이나 한 겨울 연못에 볼품

"예술은 굳이
설명보다 가슴속 감동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믿는다."



없이 녹아 있는 연 시리즈의 그림에서도 선생님 특유의 생명력은 강한 붓 자국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 꿈틀거린다.

비둘기, 몇 해 전 작은 스케치의 시작으로, 모아둔 것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관심은 사랑이라는 작은 끈으로 이어졌고, 굳이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평화, 축복의 상징물을 떠나서라도 내게는 산업화 도시 속에 가장 잘 적응해 나가는 새의 이미지로 다가왔다. 우리의 손은 거부하고 보내고 반기며 포옹하는 가장 따뜻한 부분이다. 손은 새를 쉬게 하며 안기며 구원하며 날며 군집하며, 둥지를 트는 무리들로 형상화 하였다. 예술은 굳이 설명보다 가슴속 감동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믿는다.

(2007년 10월 중인리에서 이종만–공유갤러리 개인전 팜플렛 서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그려진 비둘기는 선생님의 작품을 대표하는 소재가 되었지만 비둘기를 통해 삶과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운집해 있는 비둘기를 통해 현대사회의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 신뢰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비둘기를 주로 그리는 이종만 선생님은 평화와 축복을 상징하는 비둘기의 모습을 산업화 도시 속에도 잘 적응하는 강인한 새로 다시 한번 표현한다. 군집한 비둘기와 둥지를 튼 비둘기 등 도시에서 마주치는 비둘기의 여러 모습이 화폭에 펼쳐지며 그 모습은 아름답기보다는 치열한 생존의 모습과 운명적인 생의 욕망을 다소 착잡하게 들여다보게 한다. 이렇듯 작가는 소소하고 익숙한 것들에서 모한 아름다움 내지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느끼며 새삼 살아 있다는 것,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일정한 단위의 붓질들만이 속도, 시간을 달리하면서 평면 위를 긁어나가듯이, 문질러나가듯이 위치해있다. 결국 다채로운 색상들을 머금은 붓놀림이 구체적인 대상을 빌어 그 대상을 바라보는 화가 자신의 내면, 감동받은 것을 드러내려는 그런 그림일 것이다. 자연대상에 대한 경의적 시선을 보내고 색채가 화려하며 속도감 나는 붓질과 감정의 과잉들이 감촉된다. 인상주의적 구상화가 더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재현적 윤곽이 뭉개지면서 그로부터 색채와 물감의 질료들이 빠져나와 유동하는 그런 상황성을 안기는 것이다.

(박영택 경기대교수, 미술평론)



화가 이종만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ljongman1234

선생님의 그림은 주로 자연물인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생명력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속에 있는 '기운'을 순간적인 붓 터치와 힘찬 필(筆)을 이용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마치 동양화의 대상 속에 숨겨진 정신과 본질적인 특성을 그려내는 전신사조(傳神寫照)와 영혼을 취하는 기운생동(氣韻生動)처럼.

중앙동에 50여 평의 작업실을 갖고 매일 출근하듯이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퇴근하신다는 선생님. 남부시장 콩나물 국밥집과 팥칼국숫집 을 다니며 시장 사람들의 여러 모습 속에서 삶의 다양한 형태를 들여다보고 퇴직 이후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어 좋으시다는 선생님. 오랫동안 그 자리 그곳에서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남아 나의 지침이 되고 이제 시작하는 젊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방금 통화한 선생님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



아시아만의 정체성이란 단지 사라지지 않는 가공의 공동체로 부활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이 시대의 헤테로피아(헤테로피아: 미셸 푸코의 개념으로, 호모토피아와 상반된 것, 즉 호모토피아가 유사성에 의거한 세계라면 헤테로피아는 서로 무관하고 무질서 해 보이는 세계이다)로 남을 것이다. 적어도 그러한 범위에서 아시아 미술은 살아있고 자신을 삶을 끊임없이 영위해 갈 것이다.



아시아 미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그 가능성

김선태 (예원예술대학교 교수/미술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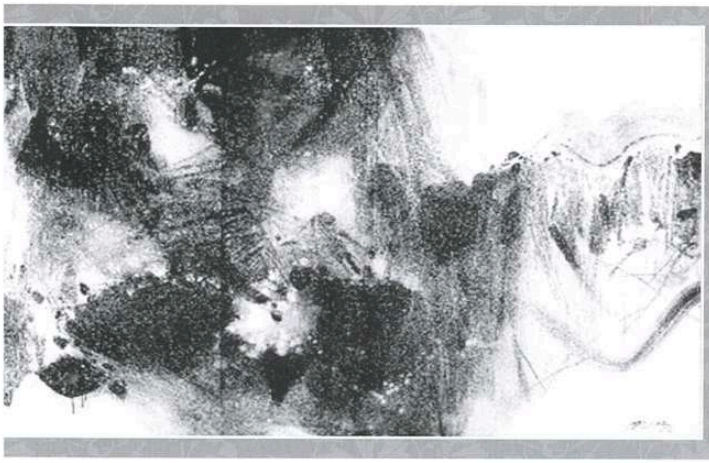
오늘의 아시아 미술은 그동안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 아시아 주요 국가 미술의 지역적 정체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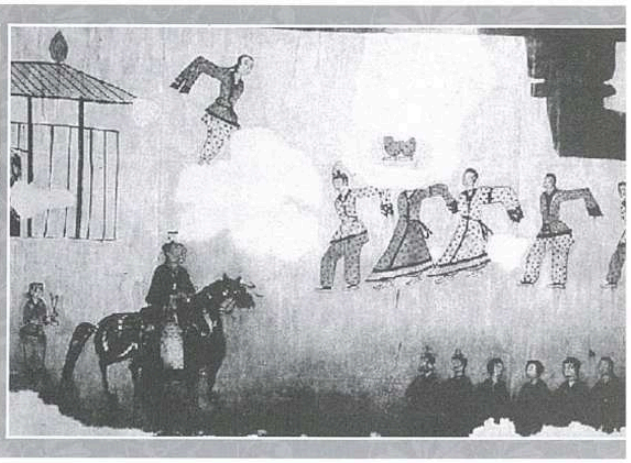
특히 현대의 복합문화주의, 다원주의의 흐름 속에서 미술 혼성, 장르 와해 현상이 보편화 되어있는 장르의 독자성, 고유성을 아시아권에서 어떻게 이어 나가고 풀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자면 아시아 미술에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서국적인 미술흐름과는 분명히 또 아시아 미술만의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비교적 현대 아시안 예술가들은 현대 미술교육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미술을 모방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겪어왔고 반대로 유럽과 미국의 예술가들은 동양예술과 정신으로 부터 영향을 받아 왔다.

서구인들의 마음에 영원한 동경과 그들 문명의 탈출구이자 해결점으로 남아있는 동양정신의 정수는 어떻게 현대 아시안 작가의 예술에서 꽃 피울 수 있는 것일까. 현재 아시아의 미술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아시아의 전통적 개념과 충돌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면서 본연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젊은 작가들이 경제발전과 서구화로 많은 혼동을 겪고 있으나 글로벌 현지화로 현명하게 적응해야 한다. 그것은 근대의 서세동점 이후 멀게는 인도에서부터 가깝게는 일본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제국이 다 같이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흔에 기인한다. 지배와 종속이라는 관계에서 파생된 회복하기 힘든 역사적 트라우마가 아시아인들에게는 남아있다. 오늘날 흔히 논의되는 글로벌리즘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적 특수성이 곧 세계적 보편성으로 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또한 맞는 말 같지만 이처럼 문화적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는 그 실현이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문화예술의 교류는 무엇보다 균등한 호혜주의의 입장에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시아의 미술이 세계 미술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국의 약진이다. 중국현대미술이 왜 최근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설은 없는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미술품의 가격이 뛰어 오르는 것은 경제순환의 전형적인 패턴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중국 아방가르드 아티스트들은 어찌 보면 중국 당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오히려 유발함으로서 서방세계의 관심을 끌지 않았나 하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기발한 중국 아방가르드 미술을 서방세계에 널리 전파한 유능한 에이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미술의 저력과 잠재력에는 높은 점수를 얻지만, 작품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중국 현대미술의 역사는 짧지만 독창성이 강하고, 에너지와 힘이 있다는 시각과 작품의 밀도보다 유행에 휩쓸려 터무니없는 대접을 받는 건 아닌지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대국이라 엄청난 작가 군에서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좋은 작품의 작가들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동안 작품이 중국의 변화되는 사회상을 팝아트적인 요소로 담아내는 작품, 냉소적인 사실주의 작품이 주류였는데, 최근 중국의 정체성 탐구, 혹은 내면의 세계를 다루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 출품된 작품 중에는 요즘 소위 잘 나가는 장샤오강, 웨민 준 같은 작가들의 팝 아트적이거나 냉소적인 작품보다는 (Lin Ruoxi)과 (Bai Ming)의 작품에서 중국 현대수묵화를 맞볼 수 있으며, 특히 서구 유화 인물화와 느낌이 다른 중국 유화 인물화의 참모습을 (Liu Yingwu)의 인물화를 통해 감상 할 수 있다. 근현대 중국미술은 장르를 막론하고 사실주의 중심으로서 문화대혁명과 함께 봉쇄된 죽의 장막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반영을 위한 인체위주의 소재가 주류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중국 유화 인물 화가들의 기량과 솜씨는 중국 전통기예의 솜씨와 견주어 평가되어 왔다.

중국과 같은 신흥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이 세계 미술 시장에서 뜨는 이유는 자국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니며 서구 중심적인 미술시장에 신선한 자극을 던져주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미술이 세계

미술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인도네시아의 젊은 작가들의 급성장세가 돋보이는데 이들은 인도네시아 특유의 자연환경을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적인 색채만 강하지는 않다. 인도네시아는 섬나라로 일찍 문호를 개방했고 서양식 미술 실기교육이 일찍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미술은 이러한 서양식 회화논리를 기초로 하면서 자신들만의 회화적 전통을 접목하기에 서양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미술의 특징 중 하나로 강렬한 색감을 꼽을 수 있다. 본래 인도네시아가 제2의 아마존이라고 불릴 만큼 풍부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다 보니 작품에도 영향을 준 듯하다.

그러나 이번에 출품된 (Patra Aditia) 작가의 작품은 종이에 연필로 소묘하듯이 표현된 형태는 얼핏 보면 알아보기 어렵다. 이렇듯 여러 가지 기물이 조합된 추상적이라 할 수 있는 작품은 보는 이의 판타지와 상상력을 자극한다.

홍콩 반환은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아시아 식민 지배를 청산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당사자인 중국의 변화는 물론 아시아 전체에 많은 파장을 가져왔다. 홍콩은 거의 150년 동안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두개의 삶을 가지고 있던 도시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과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 개인적인 역사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개인적인 역사의 재구성을 통해서 현재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열망하는 젊은 세대의 작가들에게는, 작품을 만드는데 여전히 중요하다. 홍콩이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간 지 거의 수년이 흘렀다. 하지만 홍콩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출품된 작가들의 작품에서 홍콩의 불확실한 미래와 애매한 과거, 그전에 했던 약속과 지키지 못한 약속, 별로 중국적이지 못한 현실과 완벽한 중국인처럼 '가공된' 현실 사이의 모호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일본의 미술계는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엄격한 체계로 구성된 협회 중심의 미술가 회원들이 보수적 성격의 전시회를 하는 단체인데, 전통적인 일본 양식 회화와 인상주의와 야수파에 영향 받은 서양 회화의 아카데믹한 양식을 말한다. 다른 쪽은 근래의 국제적인 경향들과 유사성을 보이는 다양한 현대 미술가들이다. 이는 모더니즘 미술제도가 이식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양상의 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일교포인 이우환의 회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80년대 초에 등장한 모노화(단색화)의 전통을 유지했던 반면에 80년대 후반에 떠오르기 시작한 젊은 작가들은 미디어를 사용하여 현대 사회의 정보와 기호를 다루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이번에 출품된 일본 작가들의 작업은 전통과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색채위주의 현대 일본의 혼성적이고 경계가 허물어진 문화적 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베트남의 미술 시류는 크게 세 개의 시대로 분류된다. 1940~50년대 인도차이나 미술학교로부터 배출된 작가들이 활동하던 현대 미술 시대, 이후 80년대까지 서구를 배척하고민족주의를 주창했던 사회주의 현실 미술시대, 그리고 개혁과 개방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도이모이 시대가 그것이다. 사회주의 시대에는 국가에 대한 찬양이나 당의 지침에 따른 공동 작업들이

주를 이뤄, 작가의 자유로운 사상이 발현된 작품이 드물었다. 그래서 컬렉터들은 현대미술 1세대와, 작가주의가 강한 개방 이후 작품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베트남 수도 하노이 거리. 거리마다 세워진 대형 입간판은 인민의 눈높이에 걸 맞는 착한 그림들이 가득하다. 입간판만 보면 베트남은 영낙없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바로 그 거리 이곳저곳에 자리한 갤러리를 들여다보면 난해한 추상화에서부터 과감한 누드화에 이르기까지, 현대서구예술의 모든 시도를 담은 자유로운 그림들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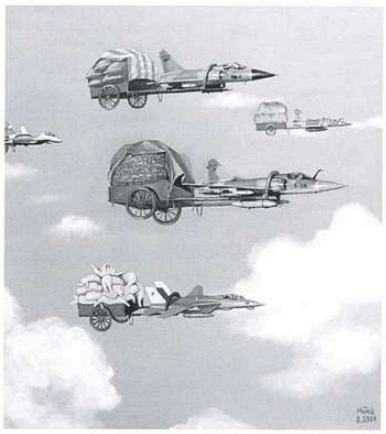
최근 들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예술이라기보다 수공예의 성격에 가까웠던 중세의 전통 나전칠기나 옻칠 동판화 등의 전통공예술이 현대 베트남 화가들의 캔버스 속으로 들어와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 옻칠 공예에서 비롯된 〈썬마이 회화〉는 서양 유화에서 실현할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 오직 베트남에서만 실험되고 있는 회화로, 이번에 출품된 (Doan Thuy Hanh)의 작품이 썬마이 회화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여기에 반하여 (Pham Huy Thong)작가의 작품은 민족주의를 주창했던 사회주의 미술에 속하는 프로파간다적인 요소가 강하다.

오랫동안 서양의 지적 전통을 유지해온 고정된 실재를 요구하는 귀납적 이론 또는 실용적 원칙은 불필요한 과제일 뿐이다. 물론 그것에 대해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다. 또는 동양적인 정신과 서양 기술이라는 진부한 표현으로 자기 방어의 논리를 삼으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제 세계화는 이 지구의 어느 부분도 지정학적 특혜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시간과 공간의 압축과 함께 공간적인 장소는 의미를 잃었다.

아시아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각 나라의 전통적인 미술의 흐름 속에서 새로움과 변화를 꾀하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아시아의 현대미술은 그 나라만의 특징을 지니며 발전하게 된다. 글로벌시대라고 하더라도 각 나라의 미술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 그 나라의 정서 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문학가나 미술가들이 자주 자신의 예술적 테마로 그러한 종류의 독특한 정체성을 즐기는 것만이 진실일 수 있다.

아시아만의 정체성이란 단지 사라지지 않는 가공의 공동체로 부활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이 시대의 헤테로피아(헤테로피아: 미셸 푸코의 개념으로, 호모토피아와 상반된 것, 즉 호모토피아가 유사성에 의거한 세계라면 헤테로피아는 서로 무관하고 무질서 해 보이는 세계이다)로 남을 것이다. 적어도 그러한 범위에서 아시아 미술은 살아있고 자신을 삶을 끊임없이 영위해 갈 것이다.▣





석지 채용신 시평

이철규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고종황제(도1) 어진

◌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1850~1941)은 무관집안출생으로 1886년 고종 37세 때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과 군수를 역임한 인물이다. 1899년까지 부산진(釜山鎭)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를 끝으로 무관직을 그만두고 전주에 내려와 기거 중 그의 일생에 중대한 일이 발생한다. 찬정(贊政) 민병석(閔丙奭)추천으로 1900년 태조어진을 모사할 수 있는 어용화사로 불려가 조석진(趙錫晉, 1852~1920))과 함께 주관화사(主管畵師)로 임명되어 태조어진을 모사(模寫) 제작하게 되며, 그 다음해 1901년에는 그의 재주를 인정 고종이 직접 본인의 어진제작 명하여 고종의 어진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당시 어진제작 노고로 고종으로부터 남다른 총애와 함께 포상으로 금관조복 및 역서(曆書), 석강(石江)이라는 호를 하사받았으며, 벼슬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정3품(正三品)으로 승진하고 후에 칠곡군수와 정산군수를 지내게 된다. 1906년 정산군수(定山郡守)를 마지막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전라도지방(전주, 익산, 부안, 진안, 정읍 등)에 내려와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듯 그의 생애를 보더라도 무관출신으로 그림을 누구에게 사사 받았다는 기록도 없고, 전문적인 직업화가도 아닌 채용신이 어용화사로 태조어진 모사(模寫)와 고종의 어진을 제작하였다는 것은 아마 타고난 천부적인 예술적 감각과 재주, 그리고 각고의 노력으로 남다른 초상화를 제작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하는 추측을 할 뿐이다.

채용신의 작품이 1943년 화신화랑에서 50여점을 전시되었고, 1951년 일본학자 구마가이노부오(熊谷宣夫)가 채용신을 학계에 처음소개 한 이래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연도가 길지가 않다. 현대에 들어와 채용신초상화작품이 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 처음 선을 보인 것은 내 기억으로는 아마 90년대 중반 전주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전북근대작가전에 채용신초상화작품(이덕응상)이 출품되면서부터라 알고 있으며, 이어 2001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에서 대표적인 초상화작품 60여점을 모아 대대적인 전시회를 개최하면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볼 수 있다.

특히 고종황제를 친히 도사(圖寫)1)한 마지막 어진화사로서 알려지면서 그 주목성이 더 해져 작품의 가치가 더 한층 높아졌으며, 그의 일대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본인이 15여 년 전부터 전통초상화에 관심을 갖고 채용신의 작품과 그의 일대기를 공부하면서 좀 의문스러웠던 것은 고종황제 **(도1)** 어진을 제작한 어진화사로서 그 유명세가 현대에까지 계속 이어질 법도 하고 또한 근대 주요작가 로서 지속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올 수 있는 작품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나 충분한 당위성 같은 것들이 갖추고 있는데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야 여러 학술 및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고, 전시회가 열리면서 학계에서 재조명되어지고 있다는 점은 조선시대 통틀어 위대한 초상화가로서 충분한 자질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를 저해하는 어떤 반대급부같은 것-일반 학자들은

최근 채용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많은 연구와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채용신이 활동했던 시기가 그리 멀지 않고 전통초상화에 대한 연구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그에게 다가갈 때에는 더 많은 신중함이 요구되어져야하며, 과소평가된 이유를 명쾌히 밝힐 수 있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황현(도2)



황현 전신(도3)

채용신이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였고 작품이 초상화에 집중되었다는 점, 대부분 주문제작을 하다 보니 문중이나 개인소장이 되어 작품들을 쉽게 세간에서 볼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정식 직업화가가 아닌 무관출신 화가이기에 동료화가나 중앙화단과의 연결고리가 없었던 점을 들고 있다.-들도 함께 상존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학자가 아닌 전통초상화를 전공한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의 초상화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기법들을 시대별로 관찰해 보면 어떤 일정한 틀에 치중해 있다 할까 즉 한 기법에 친숙해져 있다 보니 회화사라는 큰 틀에서 보면 천부적인 손기술과 재주는 있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간과한 부분이 그의 유명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데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석지 채용신의 초상화작품의 작품세계를 논하기 앞서 먼저 조선시대 초상화에 대한 성격과 시대적 배경(근대-19세기중엽부터 20세기중엽)을 먼저 파악해보는 것이 순리이며, 채용신의 초상화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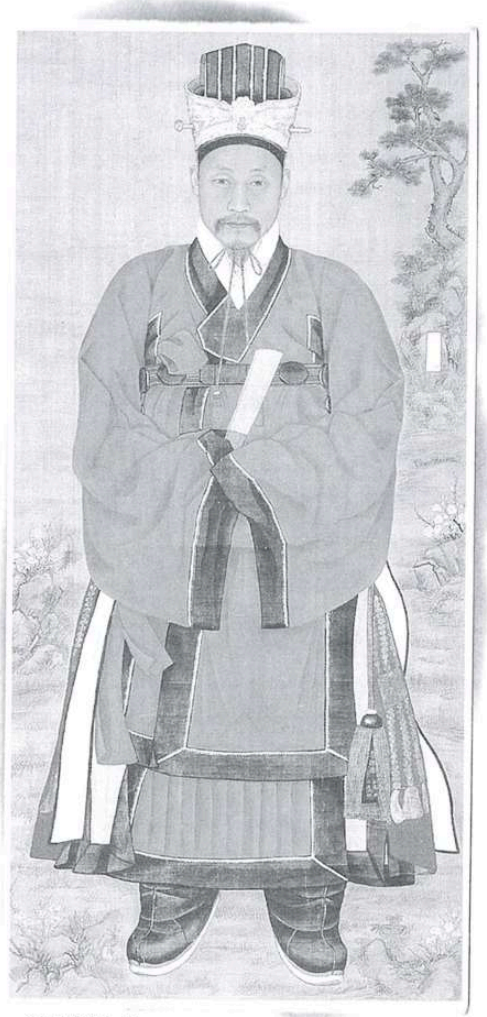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수와 질적,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달을 보여 왔으며 진전(眞殿)제도로 인해 왕의 초상화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고 일반사대부로까지 확대되어 사묘(祠廟)에 봉안되었다. 이외에 승상(僧像) 초상도 적지 않게 제작되어 조사당(祖師堂)을 조성 봉안하였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대부분 숭모(崇慕)의 대상으로 대부분 제작되었다. 고려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선전기 및 중기 초상화는 뚜렷한 필선과 선염에 의한 명암처리가 특징이라면 후기의 특징으로는 서양화법의 영향으로 음영법(음영법)과 요철법(요철법)이 도입으로 의습선이 점점사라지고 점점 명암이 대신하게 되며, 특히 안면부분을 무수한 세필로 중첩하여 명암을 주는 기법이 활성화되어 조선말기 채용신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 또한 기법면에서도 전신사조(傳神寫照)라는 화론아래 '터럭하나라도 똑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一毫不似便是他人)' 라는 명제를 가지고 기법 면에서도 놀랄만한 발전을 가져온 시기였다.

채용신의 초상화작품에서 나타나는 기법과 특징은 첫째, 얼굴부분의 뛰어난 관찰력과 이를 바탕으로 극세필로 안면의 육리문(肉理紋)을 묘사하는 표현기법. 둘째, 배채(背綵)시 안면부분에 호분(胡分)을 칠해 얼굴 부분를 현실감 있게 표현한 점과 나이에 맞게 동공의 색을 정확히 관찰하여 색채를 가미하였다는 점. 셋째, 직접성을 강조하기위하여 정면상을 주로 그렸다는 점. 넷째, 바닥에 화문석 돗자리를 주로를 그렸으며 그 기울기에 따라 제작년도가 다르다는 점. 다섯째, 손과 신발의 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점. 여섯째, 1900년대 초에는 구한말 우국지사(최익현, 황현, 전우, 이병순, 기우만, 이덕응 등)들을 주로 제작하여 조선의 독립을 독려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법과 특징들이 비교적 잘 나타나있는 대표작으로는 이번 전시에 출품되지 못했지만 한말의 거유였던 황현(黃玹)**(도2)**의 실제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한 황현상**(도3)**과 이덕응(李德應)상**(도4)**을

들 수 있다. 대상인물의 생김새뿐 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표현한 채용신 평생의 작품관을 대변해 주는 탁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채용신은 조선시대 초상화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전신사조(傳神寫照)를 비교적 잘 충실히 수행한 대표적인 작가로 고종어진까지 제작한 탁월한 작가였다. 반면 노년에는 공방을 차려 사적 계급에 관계없이 명령과 요청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초상화를 제작하였다. 특히 1920이후 제작되는 초상화들은 사진술을 결합(노년에 거동이 어려워 사진으로 주문을 맡아 집에서 작업하였다는 기록이 있음)하여 초상화를 제작하다보니 내면묘사의 심미나 기량도 점점 떨어지게 되는 데 이 점이 채용신의 작품세계를 평가할 적에 적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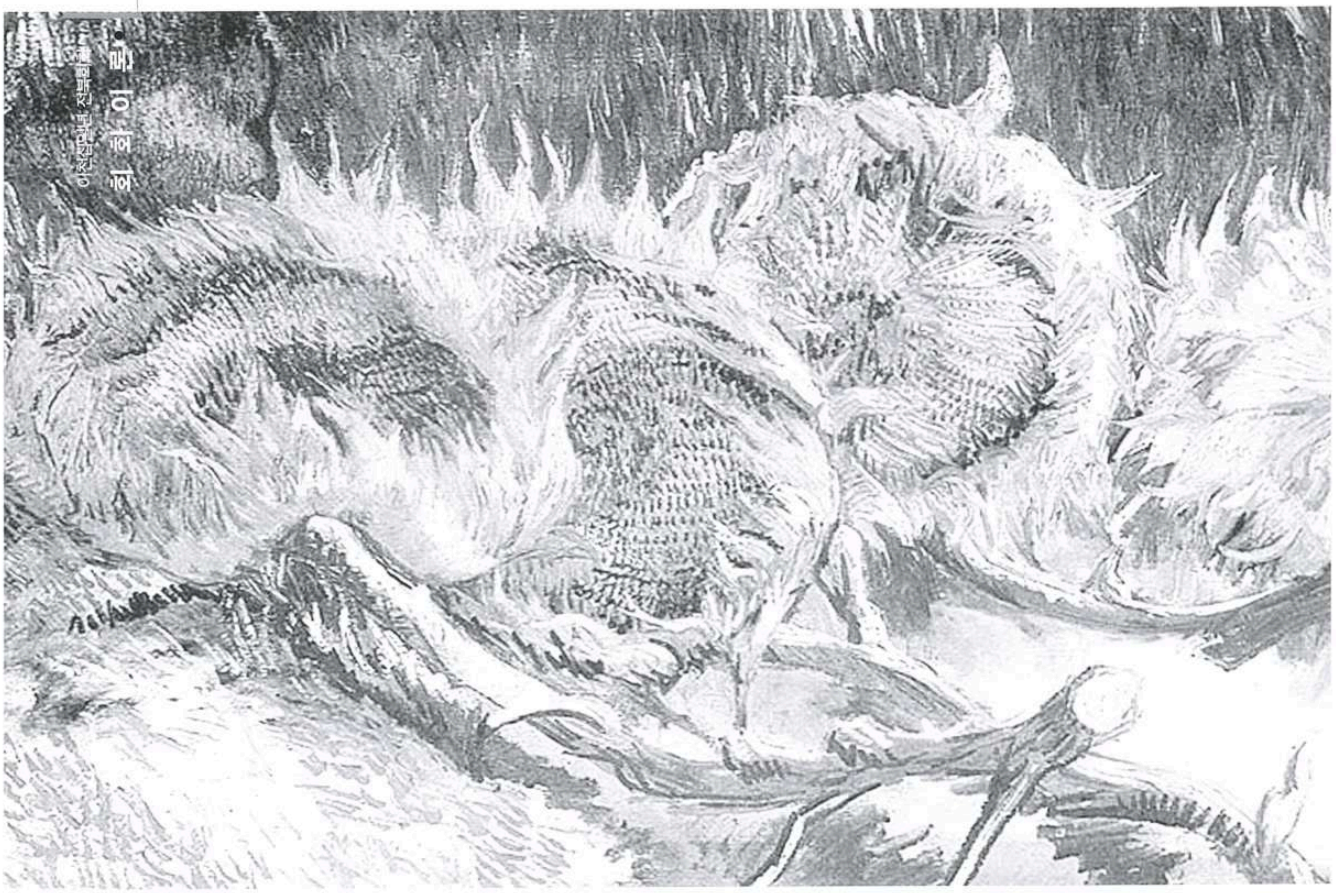
채용신은 격동과 변혁의 시대를 산 화가이다. 한편 한국 전통 초상화의 기법을 완성한 작가이다. 어진화가이면서 대중초상화를 제작한 작가이다. 무관이면서 전문직업화가를 능가하는 뛰어난 기량의 소유자이다. 한국회화사상 초상화를 가장 많이 제작한 작가이다.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으며 젊은 날 그림을 어떻게 배웠는지 전혀 알 수 가 없는 화가이다. 이러한 그 업적과 생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채용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많은 연구와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채용신이 활동했던 시기가 그리 멀지 않고 전통 초상화에 대한 연구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그에게 다가갈 때에는 더 많은 신중함이 요구되어져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과소평가된 이유를 명쾌히 밝힐 수 있는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덕응(도4)

1) 도사(圖寫)는 왕의 모습을 직접보고 그리는 방법
모사(模寫)는 전에 제작한 어진을 보고 그리는 방법
추사(追寫)는 왕을 가깝게 모셨던 제삼자를 통해 모습을 추측해 그리는 방법



네 송이의 해바라기 [100 x 60 cm 캔버스 유채, 1887년]

왜 우리는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는 것일까?

김영숙 (예원예술대학교)

지난 여름 방학에 몇몇 고등학교 친구 부부들과 함께 몇 년 동안 준비해온 남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 우리 일행은 세잔이 살았던 액상 프로방스과 고호가 살았던 아르르를 방문했다. 고흐가 마지막 생을 보냈던 정신병원에 걸려있는 고흐의 자화상을 보면서 한 친구의 남편이 고흐의 자화상이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고 말하자, 난 속으로 깜짝 놀랐다. 똑같은 그림도 보는 이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다른 한 친구는 고흐의 자화상에 그려 진 절대고독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 나에게 말했다. 나 역시 고흐의 자화상에서 극한적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려는 의지 같은 것을 읽으면서 고흐에게 진한 연민을 느끼고, 또 그의 강인한 자의식과 의지력에 찬탄을 보내고 싶었다.



그의 그림 속에는 비단 생명을 갖고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나
올리브 나무, 붓꽃과 밀밭만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초롱초롱한 별은 물론이거니와 별을 둘러싼 구름들,
그리고 그것들을 지탱해주는 대기, 심지어 길과 건물 같은
무생물들마저도 생명에 차 쉼 없이 흔들거리며 춤추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환희를
노래 부르고 있다.



몽마르뜨 언덕의 조망
[120x96cm 캔버스 유채, 1887년]



귀를 자른 자화상 1889년
[49x60cm 캔버스 유채, 1889년]

한국에 돌아오니 예술의 전당에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타이틀로 한 유럽 명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전시회 명칭으로 내건 걸 보니 적어도 우리나라사람들 중에 고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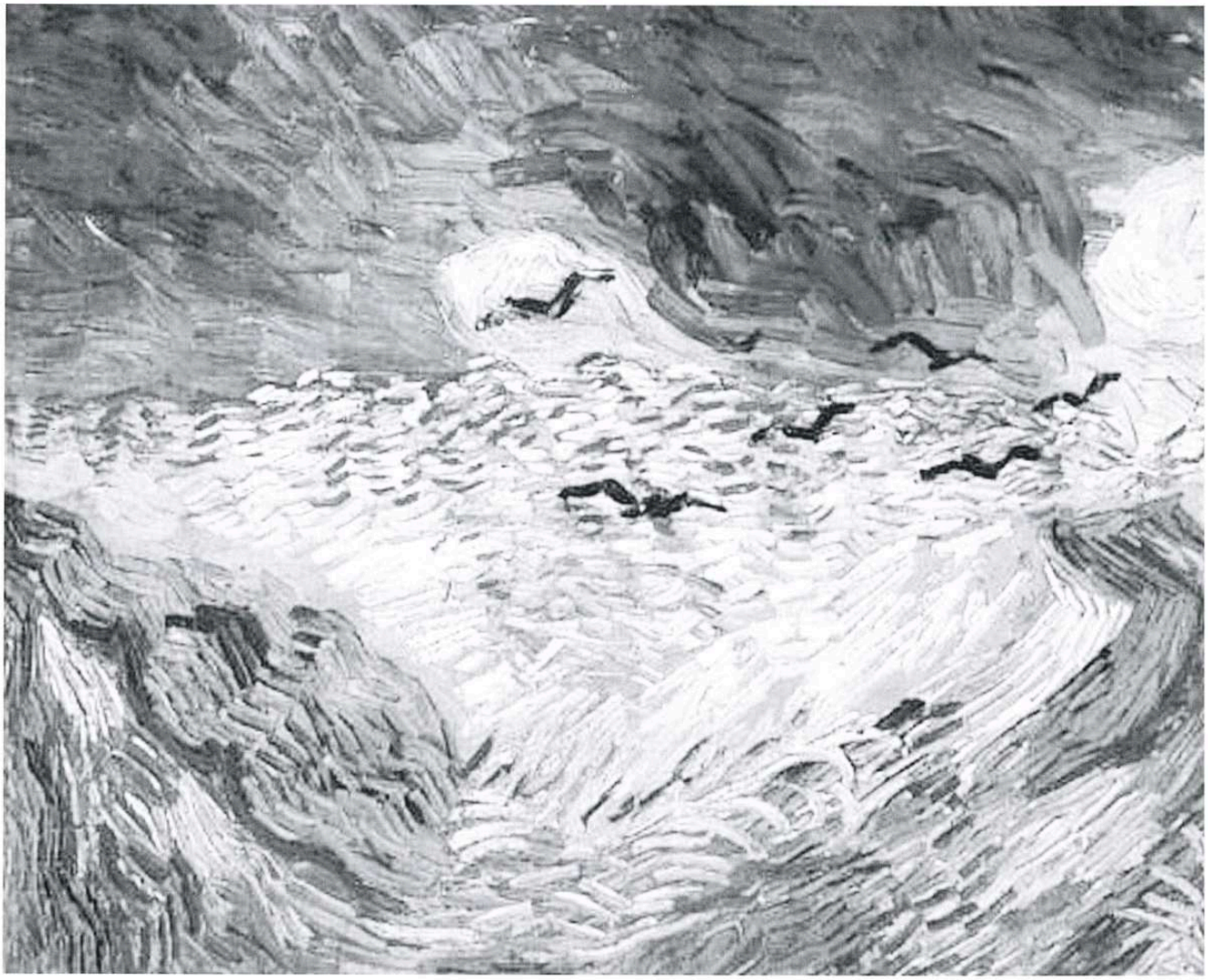
그러면 그 처연한 눈빛, 어떤 이들에게는 신경쇠약 증세를 발견하게 만들기도 하고, 결코 편한 마음으로 감상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 눈빛의 주인공의 그림을 우리는 왜 좋아하는 것일까? 물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만이 우리에게 선사한, 아무나 감히 흉내 내기 어려운 황홀한 파랑과 노랑의 배합이나 사물의 형태를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그만의 곡선들이 제공해주기는 한다. 그러나 그런 형식미적인 면만을 이야기한다면 고흐의 그림이 갖는 대중에 대한 호소력과 흡인력을 충분히 이야기하기 힘들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런 형식미가 고흐라는 예술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면적 이야기와 결코 분리된 것은 아닐지언정.

고흐는 그의 편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변변한 벌이도 갖지 못한 채 사랑했던 여자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나중에는 고갱과도 결별한 채 거의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삶을 살았다. 물론 유일한 정신적, 경제적 후원자인 동생 테오만이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예술세계에서도 소외된 채 가난과 고독 속에서의 삶을 산 고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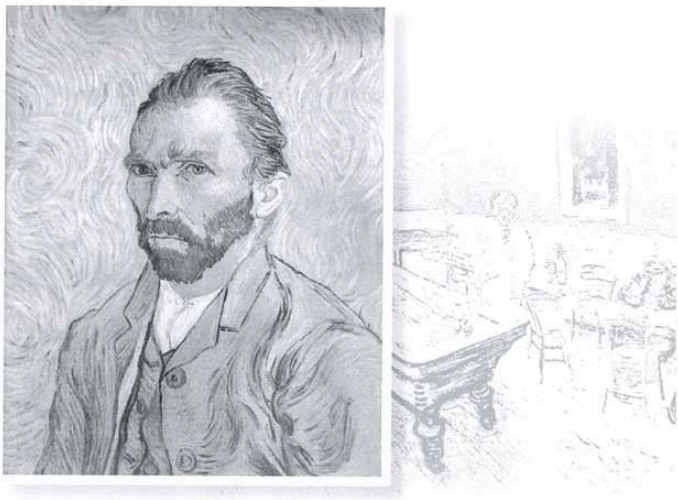
그런데 그토록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가 보여준 세상은 결코 비참하지가 않다. 아니 비참하기는 커녕 매혹적 색채와 생명력에 충만한 무수한 곡선들의 절묘한 하모니는 그 누구도 함부로 흉내 내기 힘들다. 고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되돌려보면, 그가 자괴감과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자기 파괴적인 감정에 빠져 자아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환멸이나 증오심으로 기나긴 세월을 날려버렸다면, 그토록 아름답고 삶을 찬양하는 그림들이 결코 탄생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루하루 끝없이 반복되는 돈벌이의 지겨움, 한푼 두푼을 계산하며 살아가야 하는 치졸하고 각박하기만 한 일상, 어찌 보면 더없이 지루하게 보일 수 있는 시골 풍경과 구질구질한 일상의 단면들이 그의 붓놀림에 의해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난다. 살아있는 자의 모든 고통을 온 몸에 다 부여받으면서도, 아니 어쩌면 그러한 자이기에 역설적으로 생명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아름다움과 힘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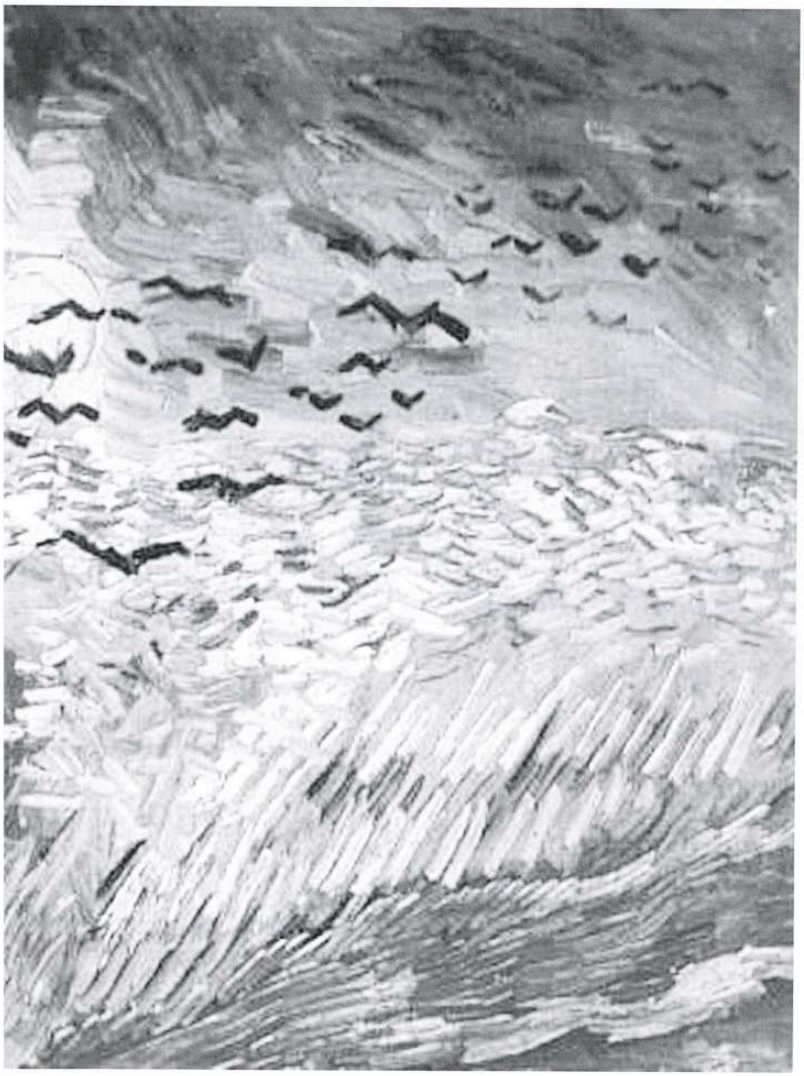
그의 그림 속에는 비단 생명을 갖고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나 올리브 나무, 붓꽃과 밀밭



만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초롱초롱한 별은 물론이거니와 별을 둘러싼 구름들, 그리고 그것들을 지탱해주는 대기, 심지어 길과 건물 같은 무생물들마저도 생명에 차 쉼 없이 흔들거리며 춤추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환희를 노래 부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곡선들이 그의 광적인 정신 상태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극단적인 고독과 고행을 역동적인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경배와 찬양으로 극복하려는 그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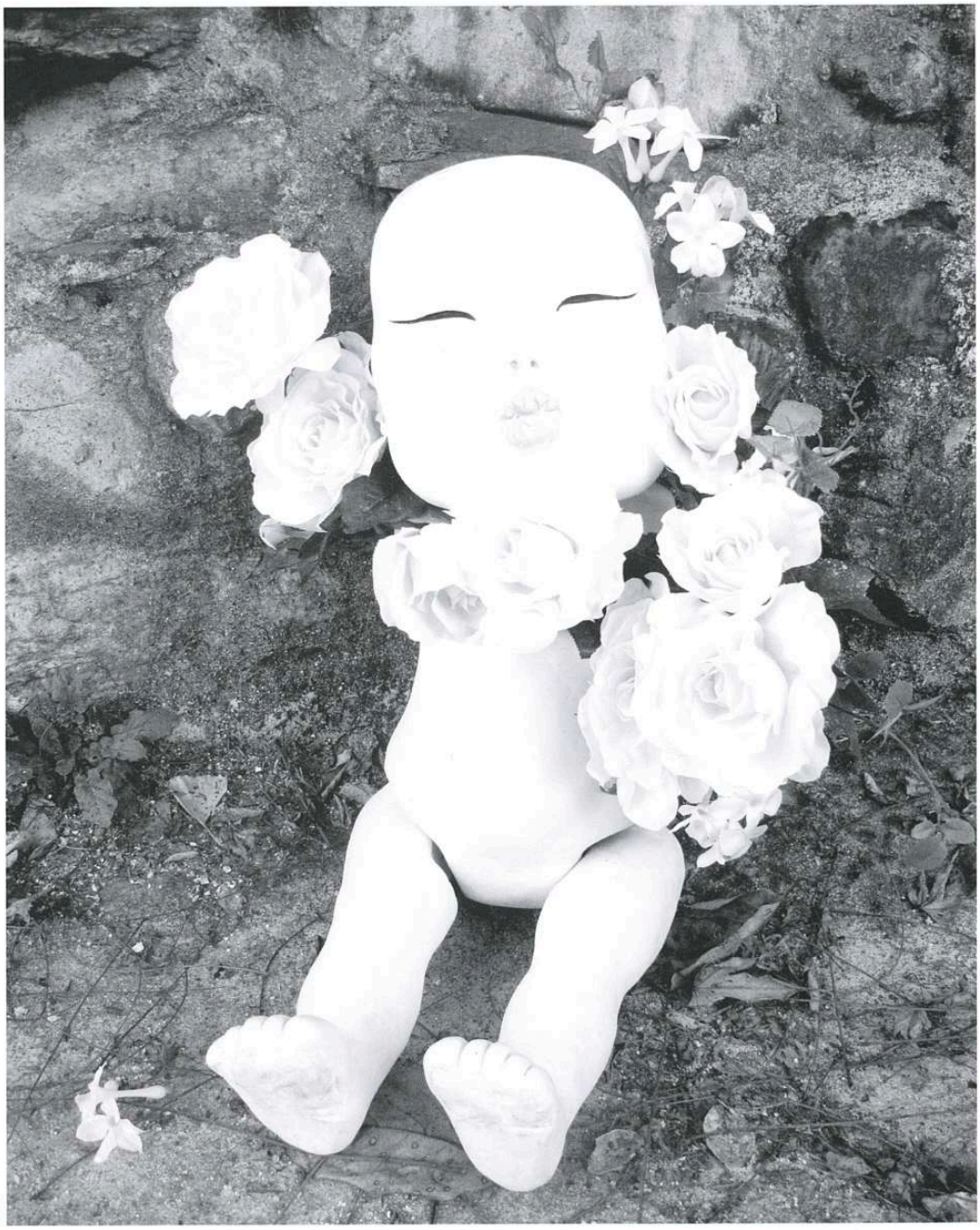


자화상 1890년 [54x65 cm 캔버스 유채]



'또 돌아와서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손에서 붓이 떨어지려고 한다. 나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3점의 대작을 완성한다. 그것은 폭풍의 하늘에 휘감긴 보리밭의 전경을 그린 것으로 나는 충분한 슬픔과 극도의 고독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다. 오베르의 종말기에 그는 옆으로 길게 된, 그에게 있어 새로운 규격의 그림을 시도했다. 지평선에의 넓은 전망에 대한 그의 잠재의식이 예견한 종말의 의식과 함께, 대지가 폭풍 속에서 바다처럼 사납게 일렁이는 거기에 까마귀가 활개치며 나르는 불안한 화면을 통하여 그는 영혼의 고독과 슬픔을 절규하고 있다. '앞날의 예감도 어둡다. 나는 미래를 행복한 빛 속에서 보는 것은 전혀 되지 않는다.' 절망감은 그를 못견디게 하고 있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 Wheatfield with Crows, 1890, Van Gogh Museum, Amsterdam



감정 / 세라믹 / 20×20×40h

신진 작가 조소 황유진

이봉금 (전북회화회 회원)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관심을 두어 좀 더 행복할 필요성이 있다. 행복한 마음을 통해 행운을 이끌어내고자 위함이고 그로 인해 진실로 행복해질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작품의 웃는 얼굴의 형상에 반응하여 어느 누군가도 미소를 짓는 행복함을 나누는 관람이 되기를 바란다.

즐거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콧노래를 부르는 순간, 웃음을 참는 순간, 미소를 지어보이는 순간 즐거움이라는 것이 표현되는 글귀 하나를 바라보는 것으로도 행복한 어느 한 순간이 떠올라 행복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다. 감정은 본인 스스로가 끌어당기는 것이며 본인의 의도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감정이다. 나는 작업을 통해 관계 짓는 관람자 또한 행복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머무르는 행복이란 명제 하에 작업에 들어가 삶의 질적 만족도를 높여주는 행복한 감정을 거울효과를 통해 이끌어내고자 하여 웃는 얼굴을 소재로 한 다소 의도적인 작업을 하였다.

우리의 뇌는 볼펜을 입에 물음으로써 입 주변의 근육을 자극하여 그 행위를 통해 웃고 있다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미소 지을 때 또는 인상을 쓸 때 자신의 표정도 웃고 찡그리게 된다. 감정 없는 움직임이라 하여도 우리는 행복한 호르몬을 발산하고 행복한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한 이론은 실 경험으로 사실을 입증하듯 흙을 만지는 시간동안 내게 행복감을 주었다. 한쪽 눈은 살짝 감으며 웃거나 입을 오므리고 웃거나 입꼬리를 한쪽만 올려 웃거나 두 눈을 감고 웃거나 입을 삐죽 내고 웃어 보이며 작업을 했던 터라 그런 듯싶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 관심을 두어 좀 더 행복할 필요성이 있다. 스스로를 소중히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시선을 발끝에서 좀 더 위쪽으로 올려 가능성과 긍정의 마음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갖음으로써 행복한 마음을 통해 행운을 이끌어내고자 위함이고 그로 인해 진실로 행복해질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소 얘기가 길어졌지만 작품의 의도는 복잡하지 않다. 작품의 웃는 얼굴의 형상에 반응하여 어느 누군가도 미소를 짓는 행복함을 나누는 관람이 되기를 바란다.▣

감정 없는 움직임이라 하여도
우리는 행복한 호르몬을 발산하고
행복한 감정을 갖게 된다.
흙을 만지는 시간동안 내게
행복감을 주었다.



황 유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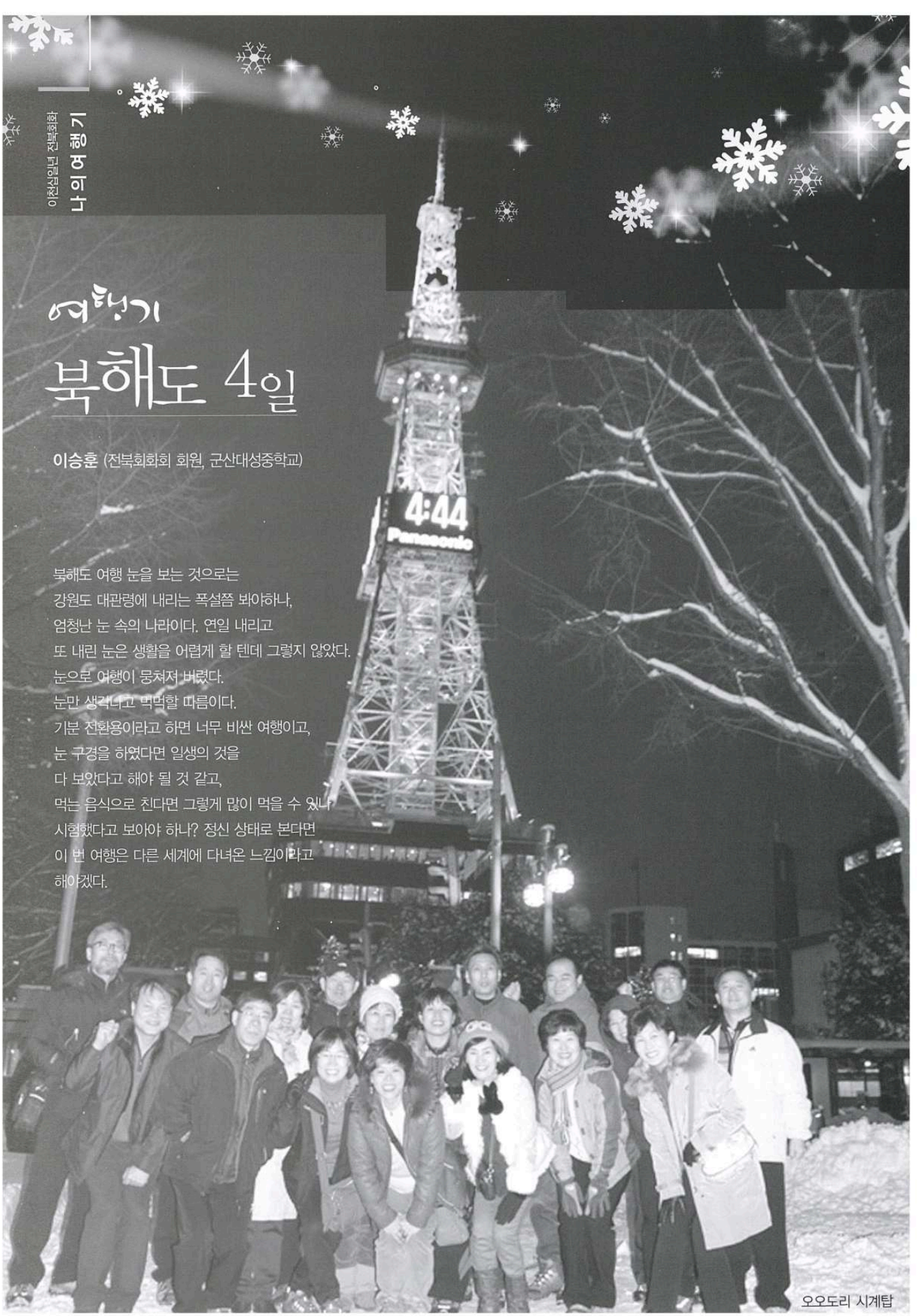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2011 제1회 개인전 – 전주 공유갤러리
· 2011 제5회 시대정신전 – 전북도청사갤러리 · 2011 제23회 현대조각회전 – 전주 공유갤러리
· 2011 상상바이러스전 – 전북도립미술관 · 2011 토끼전 – 전북대학교 예술진흥원
· 2010 낯선공간전 – 전북도립미술관 · 2010 제22회 현대조각회전 – 전주 박스갤러리
· 2010 제27회 전북조각회전 – 전북도청사갤러리 · 2010 제14회 시대정신 – 비화전 – 인사아트센터
· 2010 봄마실 고양이전 – 더차이갤러리, 헤이리 · 2009 제13회 시대전시전 – 전주 우진문화공간
· 2009 제26회 전북조각회전 – 김재에술회관 · 2009 우주적서막전 – 광주옥과미술관
· 2009 YaF아트페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2009 New Face Artist – 인사동 갤러리상
· 2009 zerobase action art fair – 광주 매개공간 미나리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592-35번지 · 전화 : 010-3657-3458
· E-mail : baiseyue@naver.com

여행기

북해도 4일

이승훈 (전북회화회 회원, 군산대성중학교)

북해도 여행 눈을 보는 것으로는
강원도 대관령에 내리는 폭설쯤 봐야하나,
엄청난 눈 속의 나라이다. 연일 내리고
또 내린 눈은 생활을 어렵게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
눈으로 여행이 뭉쳐져 버렸다.
눈만 생각나고 먹먹할 따름이다.
기분 전환용이라고 하면 너무 비싼 여행이고,
눈 구경을 하였다면 일생의 것을
다 보았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먹는 음식으로 친다면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나
시험했다고 보아야 하나? 정신 상태로 본다면
이 번 여행은 다른 세계에 다녀온 느낌이라고
해야겠다.



오오도리 시계탑

설국, 그 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언젠가부터 일기 시작했다. 일본 소설로도 알려져 있지만 겨울 여행 중에 하얀 눈으로 펼쳐진 곳에 나무가 즐비하게 서 있고 사람들이 꿈을 가만히 넣어 보는 곳 말이다. 지금은 성장하여 생활에 힘든 설국이지만, 그래도 그 젊고 아련 했던 기억을 살려서 가고 싶은 곳이다.

인천 공항은 우리 사는 곳에서 멀리 있다. 가까운 군산이라는 공항도 있지만 아직 북해도에 있는 치토세 공항으로 비행기가 날아가기에는 미흡한 것인지 모른다. 2011년 1월 8일 오전 10시 5분 발 비행기를 맞추기 위해 새벽 3시 50분에 아파트 입구에서 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야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잠도 못자고 기다리다가 버스에 올랐다. 몇 분은 벌써 좌석에 타고 있었다. 겨울이기에 요즘 날씨가 라니냐 현상으로 더욱 차갑다더니 새벽 공기는 살을 벗기는 듯하다.

인천공항에서 일본 북해도 치토세 공항까지는 2시간30여분 걸린다. 기내식 중에서 치킨이 있는 걸로 먹었다. 생선 튀긴 것보다 입맛에 맞을 것 같았다. 일본에 도착하자 관광버스로 북해도를 여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항에 대기한 관광버스로 짐을 옮기고 운전석 반대인 좌측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운전석이 우리와 반대이기 때문이다. 오후 1시가 넘자 삿포로 맥주공장 견학을 하게 되었다. 맥주와 안주 맛을 보는 정도로 공장도 둘러보고 눈으로 쌓인 전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걷기도 했다. 맥보다는 하얀 눈이 내린 공장 주변이 좋았다. 오오도리 공원으로 가게 되었다. 저녁 4시면 해가 지는 것이다. 눈이 내려 길 상태도 좋지 않았다. 삿포로 NHK 방송사 앞 시계철탑으로 우리는 가게 되었다. 우리 동네 공원과 별반 다른 것은 없어 보인다. 눈이 많은 곳이긴 하지만 눈이 많아서 일정에 차질이 오기 시작 했다. 저녁을 위하여 게 요리로 유명한 식당을 가게 되었다. 5시에 밤이 되었다. 밤이 오는지 모르고 게 요리를 먹고 또 먹었다. 7시 정도에 호텔로 갔다. 호텔은 삿포로 아파 리조트이다. 객실은 깨끗하고 정연한 모습이다. 일본 옷 유카타를 잘 접어놓고 그 위에 주황색 새 한 마리를 접어서 올려놓았다. 휴지통이 눈에 들어 왔다. 타는 물건과 타지 않는 물건을 구분해서 넣으라는 문구 있었다.



아침에 어제 늦어서 가지 못했던 오타루운하로 이동하게 되었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하였다. 거리엔 눈으로 가득하고 그 위로 차들이 잘도 달렸다. 타이어가 특수한 것 같다. 운하에 내렸을 때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운하 창고와 움직이지 않는 인력거뿐이다.

인력거 이야기 나오니 일제수탈의 현장에 있는 것 같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일본이 개화될 때 운하가 발전하였고 그 때 창고는 오타루 비루(맥주)를 파는 곳으로 바뀌고 독일 풍으로 모든 게 바뀌어 있다. 그러나 이른 아침 인지는 모르지만 문을 연 곳은 없다. 눈이 많아서 발을 옮기기도 힘들다. 이곳을 빠져나와 버스로 조금 이동하니 오르골 상점과 고양이 인형 상점과 기타이치 가라스 마을의 유리 공예품 상점 등이 나오는 거리가 나왔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면세점을 들리고 중식을 하게 되었다. 늦은 2시30분여분경이다.


아이누족


도야호수



"북해도는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주변 해역이 세계적인 어장으로 유명하다.
또한 눈 축제(유키 마츠리)가 널리 알려질
정도로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낭만적인 풍경에 다수의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사랑받고 있다.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북해도는 봄에는
벚꽃의 분홍빛이 여름에는 색색의 꽃이
주는 싱그러움이 가을에는 농산물의 수확과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아름다우며 겨울에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파우더스노우가
스키마니아들을 유혹하는 등 계절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이기에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다시 이동하여 시라오이로 이동했다. 여기가 아이누민속촌이다. 북해도 원주민이 살고 그 문화를 보존 중인 곳이다. 아이누 족들의 애환이 담긴 곳이었다는 것이죠. 일제 때 우리나라가 당한 것처럼 당하다가 나라 없이 일본으로 흡수 된 것으로 봅니다. 홋카이도가 원래 아이누족의 나라이다. 그들의 언어도 있고요. 그들만의 노래와 춤도 있고 의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의 고유문화가 있었다. 우리가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지 안했다면 그들하고 똑 같을 것이라고 생각 했다. 러시아의 동방 정복이 표면화 될 때 일본도 북해도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려고 하였다. 명치유신 이전까지는 일본 땅이 아니었다는 말씀이다.

구로다 기요다카 육군중장을 내세워 1871년부터 개척령을 설치 후에 병합하기 시작했다. 일본 범죄자를 모아서 둔전병을 두고 원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말이다. 구로다 기요다카는 키가 180cm이고 병법, 병술이 강하고 잔인하다는 것이다. 술 먹고 아내까지 죽였다고 한다. 그가 누구냐면 1986년 강화도 강압 조약 당시 일본 측 총 책임자 전권대사였다고 한다. 그렇게 북해도는 일본국으로 넘어갔다. 그 처절함은 노래로 남아 있는 듯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절구통과 절구 등이 우리 것과 비슷하였다.

도야호수 늦은 오후에 노보리베츠로 이동 했다. 이곳이 지옥계곡이라 불리 우는 화산 지대이다. 너무 늦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수증기와 냄새가 화산이라는 걸 알려준다. 도야로 옮겨서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도야 파크호텔이다. 도야호수가 보이는 곳이라 좋았다. 밤에 호텔 주변을 돌아봤다.

아침 사이로 전망대로 이동했다. 도야호수가 보이지 않는다. 눈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야 호수 유람선에 탑승하기 위하여 다시 선착장으로 나왔다. 도야호수를 한 바퀴 돌아서 둘러보았다. 크지 않은 곳인데 관광 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인 곳이다.

트라피스치누 수도원여기를 나와서 쇼와진산으로 가게 되었다. 화산활동이 계속 이어 지는 곳이다. 쇼와진산에 도착하니 먼저 보이는 것은 우스잔 정상이 보이고 눈으로 케이블카는 멈추어 있었다. 공예품 가게에는 고양이, 올빼미, 곰 등이 진열 되어있다. 동상이 하나 있는데 쇼와진산의 활동을 관측하고 기록한 우체국장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라고 한다.


트라피스치누 수도원


고료카쿠 성곽

하코다테로_이동하였다._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3시간 정도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12시40분 중식을 하였고, 2시 20분쯤 트라피스치누 수도원에 도착했다. 1898년 프랑스에서 파견된 8명의 수녀에 의해서 만들어진 트라피스치누 수도원이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이다. 바람과 눈이 내리기 때문에 걷기도 불편하였지만 둘러보기로 하였다. 현재 65명의 수녀들이 성베네딕트 계율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넓은 목가적인 초원에 서있는 성 테레지아와 잔 다르크, 천사 미카엘 등의 성상을 볼 수 있었다. 관광지로 알려지고 있지만 수녀님들이 생활하고 이들이 만든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고료카쿠 성곽고료카쿠 성곽(五稜郭)을 보았다. 일본 최초의 프랑스 건축방식인 별모양으로 지어진 요새이다. 막부의 군인과 관군의 싸움인 상관(箱館)전쟁의 무대였다. 1864년에 완공된 에도시대 성곽으로 일본에서 최초 서양식으로 지어져 유명하다. 현재는 박물관과 전망대 등이 있고 주변에 공원으로 조성 되어 있다. 눈도 내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망대는 오르지 않았다. 봄이면 벚꽃이 만발한다는데 지금은 눈꽃 세상으로 가득하였다.

모토마치 공원으로 갔다. 일본 영화나 CF에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구 하코다테구 공회당이 이색적인 건물이었다. 1910년에 완공될 당시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 그곳을 들어가려면 300엔, 들어가지 않았다. 좌우 대칭의 코로니알스타일과 블루그레이와 옐로우색이 특징적인 아름다운 건물이다. 당시로서는 가장 모던한 건물이었던 공회당은 지금은 간판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모양이 도시의 랜드 마크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건물로 여기어 지고 있다. 실내에는 귀빈실과 130조의 오오히로마(큰 거실)등이 화려한 분위기로 남겨져있다고 한다. 현재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국보급 건물이다.

이 언덕에서 바라다본 하코다테만은 해국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 모토마치 공원은 하코다테 산을 배경으로 해서 역사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1950년(쇼와25년)까지 지방의 행정을 관할했던 관공서가 있었던 행정의 중심이었다. 공원 내에는 르네상스풍의 구 홋카이도청 하코다테 청사가 있으며, 현재 모토마치



관광 안내소와 하코다테 사진 역사관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하코다테는 일본의 사진 발상지이며 사진의 관한 모든 역사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단다. 그 옆으로는 벽돌 건물로 하코다테 구 개척사를 살펴볼 수 있는 서적창고가 있다.

세계 3대 야경의 하나로 불리는 정도로 아름다운 하코다테는 언덕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언덕이 있는데 각각의 언덕마다 여러 가지 애칭이 붙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치만차카 언덕이 그 하나이다. 하코다테의 언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하치만자카이다. 일본의 드라마나 CF의 배경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이곳은 언덕위에 서면 깜빡이는 전구로 장식된 가로수와 언덕 뒤에 바다와 함께 이국적인 건물들은 샌프란시스코를 연상시킨다. 곤돌라를 타고 산 정상에 올랐다. 야경을 보기 위함이다. 야경을 보고 잠시 후에는 눈인가 안개인가 하늘을 채웠다. 더 이상 야경을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밤이 되었다. 하코다테 시카베 로얄 호텔로 들었다.

아침에 호텔 주변을 돌아봤다. 정말 오랜 만에 해를 보았다. 바다에 아침 해 뜨는 광경이 좋았다. 저 멀리 바다가 눈에 들어 왔다. 태평양이 보이는 곳이다. 고마가다까 산이 보이는 어촌에서 해가 비치는 풍경에 눈이 쌓여 눈부신 아름다움을 즐기고 콘부칸이라는 다시마 전시관에 들렸다. 역시 관광에는 쇼핑이 들어 있다. 그래도 다시마의 본고장처럼 가지각색의 음식으로 만들어 진열하고 있다.

2011년 1월11일 오후1시 20분 비행기로 인천 공항에 도착 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하여 공항을 선회하다가 20분 정도 연착하여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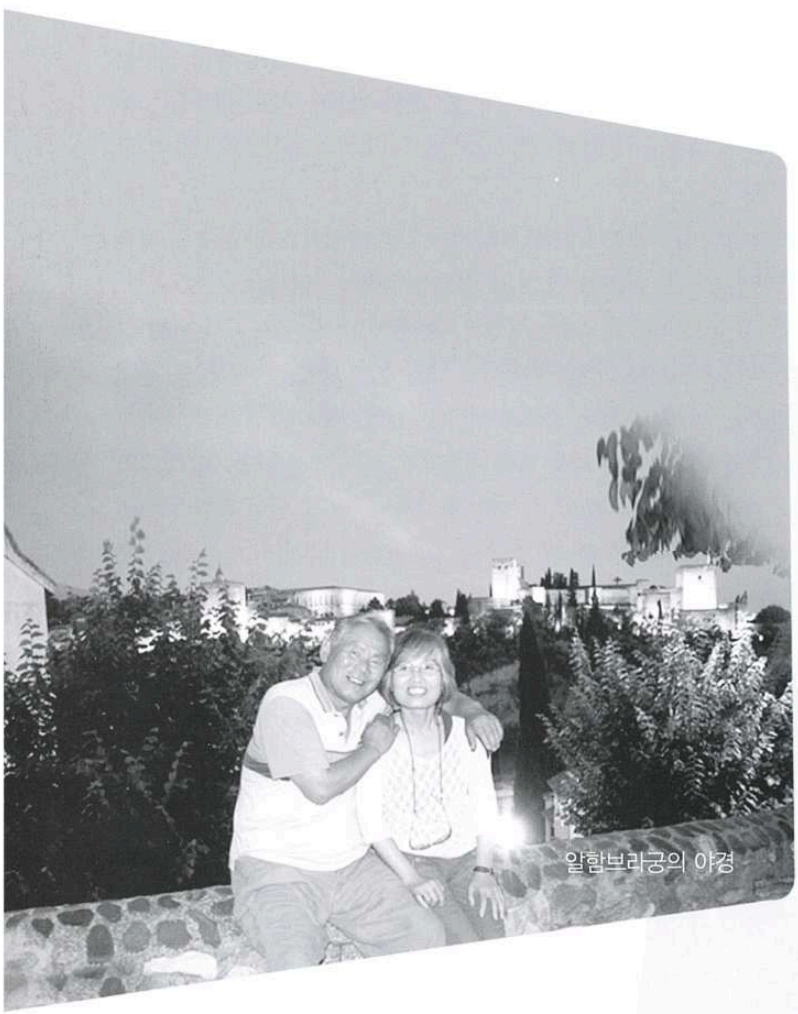
북해도 여행 눈을 보는 것으로는 강원도 대관령에 내리는 폭설쯤 봐야하나, 엄청난 눈 속의 나라이다. 연일 내리고 또 내린 눈은 생활을 어렵게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 눈으로 여행이 뭉쳐져 버렸다. 눈만 생각나고 먹먹할 따름이다. 기분 전환용이라고 하면 너무 비싼 여행이고, 눈 구경을 하였다면 일생의 것을 다 보았다고 해야 될 것 같고, 먹는 음식으로 친다면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나 시험했다고 보아야 하나? 정신 상태로 본다면 이 번 여행은 다른 세계에 다녀온 느낌이라고 해야겠다. ▣



지난 여름은 남부 했었네

스페인 남부와 에딘버러를 다녀와서...

이진숙 (전북회화회 회원)


알함브라궁의 야경

한달 여만에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꿈을 꾼 것 같아....' 내가 먼저 말을 꺼내자 '그러게 나도 이게 꿈인 것 같아.... '라고 그가 대꾸한다.

13시간여만에 도착한 에딘버러 공항에서 만난 아들녀석 첫마디가 '엄마 왜 이렇게 폭삭 늙었버렸어?' 한다. 나도 4년여만에 보는 아들내외가 낯설다.

피카소의 고향 말라가에서 만난 피카소. 유럽의 발코니가 있는 해변휴양지 네르하. 알함브라궁에서 무어인들이 잠에서 막 깬 듯 걸어 나올 것 만 같은 그라나다.

협곡에 40여년에 걸쳐 완공되었다는 누에보다리를 사이에 두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있는 론다.

게르니카에 넋을 뺏긴 소피아왕립미술관이 있는 마드리드.

소코트랜이라는 꼬마기차를 타고 돌아본 아주 예쁜 도시 톨래도.

이번에 다녀온 스페인 남부 지방들이다.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한 달 여의 여행을 위해 잠을 청했다.

글라스고 공항에서 말라가 행 비행기를 타고 3시간 여 만에 피카소의 고향 말라가에 도착하였다.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

피카소생가와 피카소박물관을 보고 '외팔이성당'을 관람했다. 종탑을 두 개 세우려 했는데 헌금이 모자라 한 개 만 세워서 붙여진 별명이란다.

금강산도 식후경, 천정에 빼곡하게 걸려있는 하몽이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몇 년 전 바로셀로나에서 먹어본 하몽 맛을 잊을 수 가 없었는데 또 다시 내 입이 호사를 누리게 되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도 연신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띄우며 하몽 맛에 빠져있다. 이 날부터 스페인 여행이 끝나는 날까지 저녁에는 꼭 하몽과 와인이 우리 곁에 있었다.

유럽의 발코니가 있다는 네르하는 바닷물 빛이 비취가 녹아있는 듯이 맑고 투명하여 황홀하다. 뜨거운 태양아래 해변에 자유분방하게 놀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며 마냥 부러운 시선만 보냈다.

뜨거운 한낮을 피해 오후 6시쯤 '프리힐리아나'라고 불리는 하얀 마을에 갔다. 오후 6시라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한낮 같은 태양이 내리쬔다. 백여넌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 마을은 가파른 언덕에 온통 하얀색으로 만들어졌다. 백여 호 정도되는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문화유산에 등재되어있단다. 내려오는 길에 비탈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진 탁자와 의자가 있는 바에 들려 시원한 상그리아로 목을 축였다.

다음 목적지는 이번 스페인여행에서 가장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곳 그라나다이다. 스페인 도로는 사거리대신 로터리가 있어 차를 타면 심하게 흔들거리며 도는 바람에 이곳에 도착 할 때까지 차멀미에 시달렸다. 터미널에 내려 택시를 탔는데 수다스런 택시기사가 숙소까지 오는 내내 그라나다축제, 알함브라맥주, 축구, 투우에 대하여 열 번을 토한다. 정열의 나라답게 그곳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매우 친절하다. 이곳 그라나다도 여느 유럽도시와 마찬가지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있다. 그리고 좁고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골목, 그런 곳을 요리조리 잘도 빠져 나가는 택시들, 이런 것들이 내가 다녀 본 몇 안되는 유럽 도시들의 공통점 인 것 같다.

이곳 스페인은 아직도 '씨에스타'가 있다. 오후 2시~5시까지는 가게도 대부분 문을 닫고 거리에는 관광객들만 돌아 다닐 뿐이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무슨 원시적인 일인가하고 생각했었다. 몇 년 전 스페인 북부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살인적인 더위는 지금도 이곳에 씨에스타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인 것 같다. 우리도 오후 2시에는 숙소에

들어가 낮잠을 한잠씩 자고 나오곤 했다. 이날도 낮잠을 즐기고 늦은 오후에 플라맹고 공연을 보기위해 나섰다. 해가 넘어갈 즈음이면 사람들 모두가 길거리로 나온 것처럼 모든 거리가 인산인해이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공연장에 들어갔다. 오후 9시30분에 시작된다던 공연은 10시가 되어도 감감 무소식, 듣던대로 시간은 그냥 형식이다. 어기기가 일쑤란다. 목이 빠지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기타리스트의 애잔하고도 강렬한 연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가수가 나와 마치 우리네 창과 같은 노래를부른다. 알아듣진 못해도 그 목소리와 선율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한참후에 드디어 무용사가 등장, 앗뿔싸! 남자무용수....우린 흔히 플라맹고하면 여자무용수를 생각하는데, 빨강위 아래 바지슈트에 검정와이셔츠를 입고 춤 추는데 격렬하고 정렬적이며, 우렁차고 색시하며. 무엇이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춤사위는 시간이 갈 수록 더욱빨라지고 더 정열적이고....관객들도 모두 '올~레' 하면 추임새를 하고.....플라맹고는 연주자, 가수, 무용수, 모두를 플라맹고라고 한단다. 무용수의 발놀림에 맞추어 연주가 계속된다. 관객의 박수가 나오면 공연은 더 이어지고 완전혼연일체가 된, 흥분된, 그리고 아주 색다른 경혐이었다. 숙소로 걸어오는 내내 공연의 흥분이 가라앉질 않았다.

드디어 알함브라궁에 가는 날이다.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행했다. 구도심은 도로가 좁아 모두가 일방통행이다.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요리조리 잘도 달린다.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또 한번 놀랐다. 몇 년전 루브르박물관에서 길고 길게 줄을 섰던 기억이 난다. 책으로만 보고 음악으로만 듣던 알함브라궁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들어가는 초입부터 가슴은 쿵쾅거린다. 하늘을 찌를 듯이 서있는 나무들, 곳곳에서 뿜어대는 분수와 연못, 형형색색의 꽃들, 어느화가가 그린들 이렇게 아름다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13세기 전반에 9세기에 있었던 알카사바(성채)를 확장하면서 착수한 일함브라 궁전의 조경은 14세기 후반에 이르러 오늘의 모습을 갖추 되었단다. 성채에는 24개의 탑과 군인들의 숙사, 창고, 터널. 목욕탕 등이 있다.

벨라탑에서는 알바이신지구, 샤크로몬테언덕, 그라나다 중심부, 시에라 에바다 산맥까지 볼 수가 있어 시야가 확 트인다. 거대한 연못과 그라나다 왕국 이슬람문화의 정점을 이루는 아라베스크 문양이 일대 파노라마가 되어 펼쳐져있다. 안타깝게도 가장 아름다운 '사자의 중정' 은 복원 중이어서 완벽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대신 다른곳에 옮겨놓은 12개의 사자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알함브라궁은 미국의 작가 워싱턴 어빙의 〈알함브라 이야기〉라는 소설이 발표되면서 카톨릭스페인 부부왕에 의해 패배한 이슬람왕국의 문화가 복원되게 되었다. 이 궁전은 지상으로부터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놀랍게도 사방에 연못과 수로가 잘 되어있다. 인도의 타지마할을 연상하게 하는 건물도 있었다. 무굴제국의 부귀와 영화를 뒤로 하고 알함브라궁을 나왔다.

알함브라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그리고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수 아라베스크 문양등이 내내 눈앞에 아른 아른 하다.

늦은 오후에 다시 알함브라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 노을이 아름답다는 '성 니콜라스광장' 에 올라갔다. 노을에 비친 환상적인 알함브라를 마음에 넣고 하몽과 와인을 곁들인 저녁시사를 했다.

다음 날 우리는 기차를 타고 협곡위에 세워진 도시 론다에 갔다.

인구가 3만 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도시인데 많은 관광객이 '누에보 다리' 를 보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란다.

다리 위에서 본 협곡은 아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다. 협곡 위에 세워진 도시 답게 어디를 가나 절경이다. 이곳은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장도 있다. 투우는 스페인의 오래 된 문화이니 이방인인 내가 탓 할 바는 아니지만 투우장에 끌려온 소가 수많은 관중의 함성에 얼마나 기가 질렸을까 생각하니 기분이 썩 좋진 않다.

우리는 또 한번의 플라맹고 공연을 보기 위해 세비아행 버스를 탔다. 가는 내내 도로변에 끝없이 펼쳐진 올리브 밭, 밀밭, 해바라기 밭등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을 보며 세비아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숨도 쉴 수가 없는 더위가 엄습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곳 세비아는 한 여름에는 섭씨54도까지 오른단다. 그 날은 섭씨 39도였다. 스페인 광장에 갔으나 더위 때문에 사진 몇 장 찍고 이내 숙소로 돌아와 씨에스타를 즐겼다. 아마 이곳 사람들은 씨에스타가 없었다면 무척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늦은 밤에 시작되는 플라맹고를 보기위해 바에 갔다. 그라나다의 대공연장과는 달리 와인과 맥주를 마시면서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었다. 5~6명의 무용수가 번갈아 가며 나와 그들의 숨소리, 발소리까지 들으며 공연을 보니 나도 덩달아 흥분이 된다. 한 시간 이상 되는 시간 내내 무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정말 아름답고 격정적이며 애잔하기까지 했다.

공연이 끝나고 자정이 가까운 시간인데도 길거리카페들은 발들여 놓을 틈도 없을 만큼 만원이다. 한 낮의 더위에 비하면 이곳의 밤은 무척 시원하고 활기가 있다.

다음날 우리는 마드리드행 초고속 열차를 탔다.

나는 듯이 마드리드 역에 도착하여 택시를 탔는데 드디어 스페인의 진가를 맛보게 되었다. 분명 숙소가 역 근처라고 했는데 택시기사는 우리를 태우고 돌고, 돌고, 또 돌고는 길이 막혀 갈 수 없으니 이곳에서 내려 저기, 저기로 걸어가란다. 그것도 한낮에.....숙소에 도착하여 주인에게 말하니 5분도 안되는 거리에 숙소가 있단다. 가이드북에서 읽었던 바가지 택시요금에 우리가 걸린 것이다. 그 동안 스페인에서 받았던 친절함,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들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기분이 무척 나빠졌다. 오는 내내 마드리드의 사기꾼 택시가사의 이야기를 했었다. 떨떠름한 기분을 푸는데는 역시 먹는 것이 최고, 마드리드에 있는 시장을 찾아 전철을 탔다. 도착한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곳도 씨에스타를 즐기고 오후 5시에 다시 문을 열어 오후 8시면 시장이 문을 닫는단다. 이것저것 사고 한국인 가게에 들려 고추장 도 사서 그날 저녁 맛있는 성찬을 즐겼다.

떨리는 마음으로 '프라도미술관'에 갔다. 소장품이 무려 8,000점이라는 말에 기가 질렸다. 중요한 작품들을 골라 보는데도 족히 6시간은 걸린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고야, 라파엘, 루벤스. 벨라스케스등의 작품들을 보고나니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았다. 저녁에는 '소피아왕립미술관'에 갔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무료관람이라니 이곳 사람들은 참 복도 많다. 그곳은 소장품이 10,000점이 넘는단다. 나는 딱 '게르니카' 한 점만 보기로 마음먹었다. '게르니카' 앞에 족히 한 시간은 있었던 것 같다.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이곳은 개인 콜렉터들도 7~800점 정도는 소장하고 있다니 예술의 보고가 아닌가 싶다. 스페인은.....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톨레도'라는 작고 예쁜 도시를 갔다. 소코트랜(꼬마기차)을 타고 약 40여분간 시가 전체를 둘러보고 파라도르에 갔다. (파라도르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전지역에 있는 전망 좋은 높은 곳에 예쁜 호텔을 지어 그곳에서 커피와 술을 마시고 숙식도 하는 곳이란다.)톨레도 전체를 관망하면서 맛있는 커피와 시원한 맥주로 피로를 풀었다. 이곳 톨래도는 시 전체가 유네스코문화 유산에 등재되어있는 곳이다. '엘그레코'의 생가에 들려 그의 그림과 제자들의 그림도 감 상 할 수 있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스페인을 떠나기 전 우리는 레알마드리드 축구장에 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팀이 있는 곳답게 많은 관광버스가 그곳 운동장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른다. 관광상품 아닌 것이 없다. 우리도 이렇게 유명한 축구팀, 야구팀, 농구팀이 있어 세계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스페인의 마지막 밤이 되었다. 맛있는 빠에야, 타파스, 그리고 그라나다맥주, 하몽과 와인 플라맹고, 프라도, 소피아미술관등 아마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

마드리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에딘버러에 도착하니 스페인의 더위가 그리워졌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도.....이곳 에딘버러는 맑은 날보다는 비오고 흐린날이, 더운 날보다는 춥고 습한 날이 많은 곳이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그곳에 머무는 내내 날씨에 따른 불편함이 없었다. 우리나라 만큼이나 슬픈 역사를 지닌 스코틀랜드, 지금도 영연방에 속해있는 나라이다. 에딘버러는 인구 5~60만의 아주 작은 도시이지만 구시가지가 잘 보존 되어있고 해마다 8월이면 세계적인 '에딘버러축제'가 한달 간 열리기도 한다.

아들내외는 오랫 만에 집에 도착하였다며 무척 좋아한다. 우리내외도 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라면과 밥, 그리고 단무지를 곁들여 맛있는 저녁을 먹고 아들내외의 그간의 활동내용을 듣고 작품사진도 보고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서 깊은 잠을 잤다. 늦은 아침을 먹고 일요일마다 열린다는 중고 장터에 갔다. 'car boots sale'이라고 한단다.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느꼈다. 우리가 흔히 쓰는 'car trunk'를 영국식으로는 ' car boots'라고 한단다. 어마어마하게 큰 지하주차장에 갖가지 중고품들이 가득하다. 보는 재미, 흥정하는 재미, 아주 싼 값에 옛날 귀한 물건까지 살 수 있는 행운이 있었다. 그런 다음 높은 언덕에 위치한 '에딘버러 성'에 갔다. 스코틀랜드의 슬픈역사가 숨쉬고 있고 전쟁기념관이 있어 이곳 사람들도 많이 찾는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집에 오는 길에 Bag-pipe 연주하는 것을 보고 PUB에 들어 맥주와 fish&chips와 하기스(양내장요리)를 먹었다. 이곳의 음식은 전통요리랄 것도 없고 맛도 별로다. 특히 하기스라는 음식은 내 입맛에는 전혀 맛질 않았다.

다음 날 우리는 스코틀랜드여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하이랜드로 향했다. 가는 길목에 골프의 발상지라는 세인트앤드류시에 들러 골프의 올드코스를 구경하고 '젝 니클라우스'가 대회에 우승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 유명해진 다리에서 멋진 사진을 찍었다. 이곳은 아주 조용한 시골마을로 이곳의 수사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막대기로 공을 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날의 골프가 되었단다.

하이랜드는 아주 척박한 땅으로 나무도 자라지 않고 오로지 이끼 식물 밖에 없는 땅이다. 땔감이 없어 이끼같은 풀들이 쌓여 퇴적한 피트라는 석탄재료를 1m깊이로 파서 운반하여 말려 사용하고 사냥한 짐승의 고기와 털로 옷을 해 입고 살아갔단다. 가난하고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 온 그곳이 오늘날에는 관광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달리다 한곳에 차를 멈추었다. 천지가 고사리 밭, 우리의 입에서 절로 탄성이 나왔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먹을거리가 이곳 사람에게는 양이 먹는 한낮 풀이라니.....이곳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다. 햇살이 쨍쨍하더니 이내 소나기가 퍼붓는다. 다행히 춥진 않았다. 괴물이 나왔다는 '네스호' 이곳의 물은 진한 간장 색이다. 풀뿌리가 수 십년에 걸쳐 썩어 흘러내린 물이라고 한다. 이 지방 대부분의 하천물색은 모두 진한 간장 색을 띠고 있다.

오는 길에 '다빈치코드'라는 영화에 등장한 'Rosslyn chapel'에 들렸다. 작고 아담한 성당인데 내부에 들어가니 기기묘묘한 부조들로 가득 차 있다. 부조들에 얽힌 사연들을 읽으며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도 참 좋았다. 점심 식사를 위해 주차장에 나왔다. 준비해 간 샌드위치를 먹는데 눈 앞에 빨간 양귀비꽃이 가득 핀 들판이 보인다. 마치 모네의 그림을 보는 듯 했다.

한 무리의 멋쟁이 할머니들이 보인다. 이곳 영국은 오전, 오후 두 차례 'tea time'이 있단다. 직장도 예외는 아니고, 이 할머니들도 ' tea time'를 즐기기 위해 근처 찻집에 가는 것이란다. 같은 시간 할아버지들은 PUB에 모여 맥주 한 잔 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여가시간을 보낸다니 부럽기도 하다.

에딘버러 시내 이곳 저곳을 돌아보는 중 옛날에 죄인들을 공개 처형했다는 광장을 보았다. 그 곁에 'The last drop'이라는 술집이 있는데 그곳은 죄수들이 처형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였던 곳이란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자밥'을 주던 곳인 모양이다. 지금도 그 간판 그대로 사용하며 그곳에서 맥주와 간단한 식사를 판매하고 있었다. 그곳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니 기분이 참 묘했다.

아들 내외가 살고있는 집 뒤쪽에는 아주 커다란 잔디밭이 있고 그 주변에는 어느 곳에서도 다 보이는 동산이 있어 주말이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책 겸 picnic을 즐긴단다. 며칠 전부터 잔디밭에 철책이 세워지고 의자가 놓이더니 스코틀랜드식 군복을 입은 많은 군인들이 정렬을 하고 무엇인가 행사를 하고 있었다. 들어보니 군대의 군기교체식이란다. 별궁에는 여왕깃발이 걸려 있고, (여왕이 이곳에 오는 날에는 여왕기가 걸린단다.) 혹 여왕을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행사가 막 시작되자 검정색 차량이 들어 오는데 핑크빛 모자에 핑크색으로 성장을 한 여인의 모습이 살짝 보인다. 조금 있으니 마이크에서 맑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고 핑크빛 의상이 보인다. 엘리자베스 여왕이다. 행사가 끝나고 다시 검정색 차가 우리 곁을 지나가는데 열린 창문으로 여왕이 손을 흔드는 것이다 . 바로 내 앞에서....이곳 사람들의 여왕에 대한 사랑은 대단 하단다. 어떤 이는 16년을 살아도 그 날 처음으로 여왕을 보았다는데 우리는 일주일간 머물면서 여왕을 보는 행운을 누린 것이다. 아마도 80은 족히 넘은 나이 일텐데 정말 곱고 귀티가 난다. (이곳 여인들은 특별한 날 여왕의 패션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을 즐겨 한단다.)

길게만 느껴질 것 같던 한 달이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6년 여만에 아들내외에게 감격의 생일상을 받아 본 남편, 그리고 부자간에 한달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음식점에서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 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서먹할 것만 같았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가 더없이 다정해지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출국하려고 공항에 도착하니 만감이 교차한다. 또 언제 아들내외를 만날까. 즐거웠던 여행이었지만 타국에 남겨놓고 떠나와야 되는 애틋함이 더 크다.

이번 여행이 그래서 더욱 오래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다.

에딘버러 공항에서 헤어지고 암스텔담 공항에서 환승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입고 왔던 옷이 불볕더위에 부담스러워졌다.

이제 또 다른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하이랜드지방의 U자계곡에서

읽을 만한 책



바보화가

〈 저자 몽우 조셉킴 / 동아일보사 / 2011년 7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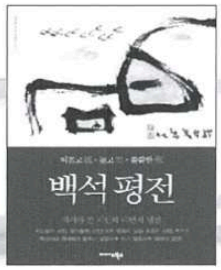
바보화가라는 이 책은 화가 몽우 조셉킴이 바보화가..무명화가에서 천재화가로 알려지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화가의 태어남에서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가는 어릴적부터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행복을 갈구하게 되고 행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모습들이 절절이 들어 있습니다.
저자는 암과 백혈병,심장질환과 뇌발작,간질,복합적인 증상과 더불어 거액의 빚들이 있었습니다..어두운 시기에서 꿈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통해 많은 감명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한 좌절과 슬픔,스트레스를 겪을수밖에 없었던 몽우 조셉킴은.. 나중에 천재화가로 인정받고...백석평전,바보화가,이중섭을 훔치다와 같은 책을 저술하게 될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이중섭을 훔치다

〈 저자 김영진(몽우 조셉킴) / 미다스북스 / 2011년 7월 〉



이중섭을 훔치다라는 이 책은 천재화가 이중섭에 대한 천재화가 몽우 조셉킴의 눈빛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중섭이 정신병자가 아닌 진정한 천재인 이유를 이 책에서 밝혀주고 그림 하나에 민족과 자신의 삶을 그려넣는 지성인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이중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이중섭이 가진 잠재력을 펼쳐 보이고 있어 이중섭이 우리 한민족이 자랑할 걸출한 미술인임을 밝히고 있지요. 이중섭이 과연 정신이상자였을까...이 책에서는 이중섭이 정신이상이었던 천재가 아니라 지성적인 정신력을 가진 걸출한 한국이 자랑하는 예술가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화가가 화가를 예리한 시선으로 그려낸 책이라 흥미진진하실 것 같습니다. 극도의 시간속에서 이중섭이 걸작을 그려낸 배경에 대해 밀도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중섭의 모든 영혼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는 책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백석평전

〈 저자 김영진 / 미다스북스 / 2011년 1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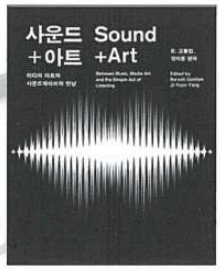
윤동주 등의 시인이 백석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시인 백석이 미친 폭넓은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 백석이 누구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어떤 시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그리고 대중가요와 여러 사회 전반에 백석의 시가 준 영향과 더불어 백석 시가 화가 몽우 조셉킴에게 미친 광범위한 예술적 영향에 대해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책입니다..문학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시인 백석이 가진 시의 힘과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될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림이 문학을 통해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석지 채용신

〈 국립현대미술관 저 / 출판사 삶과꿈 / 2001년 6월 〉



한국회화사상 초상화를 가장 많이 그린 화가 채용신. 그가 살았던 시대와 화단을 살피고, 91년이라는 긴 생애와 예술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초상화를 비롯하여 산수, 화조 100여 편의 작품을 수록했다.



사운드아트

〈 저자 바루흐 고틀립 / 양지윤 편저 / 미술문화 / 2008년 2월 〉

세상의 많은 소리들 그리고 사운드 아트. 사람들은 때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 앞에서 또는 보기 싫은 광경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다. 고맙게도 우리에게는 눈꺼풀이 있기에. 하지만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귓바퀴를 잡아당겨 덮기 어렵다(당신이 사오정처럼 늘어진 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만큼 우리는 소리에 노출되어 있고, 소리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자 한다면 음악이 될 수 있지만, 듣고 싶지 않다면 소음이 된다.
'사운드 아트'는 이 분야에 관련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다. 하지만 말 그대로 소리로 만들어진 예술을 음악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귀로 듣는, 몸으로 느끼는 소리와 음의 파동, 우리 주변에 널린 많은 것들이 사운드 아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롭게 발견한 그러나 낯설지 않은 예술이 된다.


김서영
박지혜
박성수
방정업
서진숙
안순금
엄기석
이광원
이명자
이봉금
이승훈
이우정
이진숙
이철규
이철랑
이화랑
이은혜
윤 호
정미현

편.집.후.기

전통이 희박해 가는 세태의 한 중심에서 심지를
돋우고 생명을 일으키는 자세로 21년의 시간을 굳굳히 지킴을 자축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모색할 것이며
전북회화회지 통권 18호가 발행되도록 옥고를 보내주신
김선태 교수님, 김영숙 교수님, 김저운 시인님, 이구학 수필가님과
그동안 없는 살림에 열과 성의를 다한
전북회화회 회원님들께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를 드린다.



전북회화회 하계 연수

- 2011. 9. 23 - 24
- 마멜드기법익히기 및 세미나 (전주 유안순게스트하우스)





전북회화

2011년 통권 제18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안순금
편집위원 이승훈, 고형숙, 이광원, 정미현
전북회화 2011년 통권 18호
발행일 2011. 12. 21
대표연락처 010-2635-6314
기획,제작 프린팅헤븐 T. 287-9796, 010-5255-1236

2011



http://cafe.daum.net/artjb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